

아주대의료원 소식 11

2012

통권 제214호 / 발행일: 2012. 11. 1. / 발행인 겸 편집인: 蘇義永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443-72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전화: 1688-6114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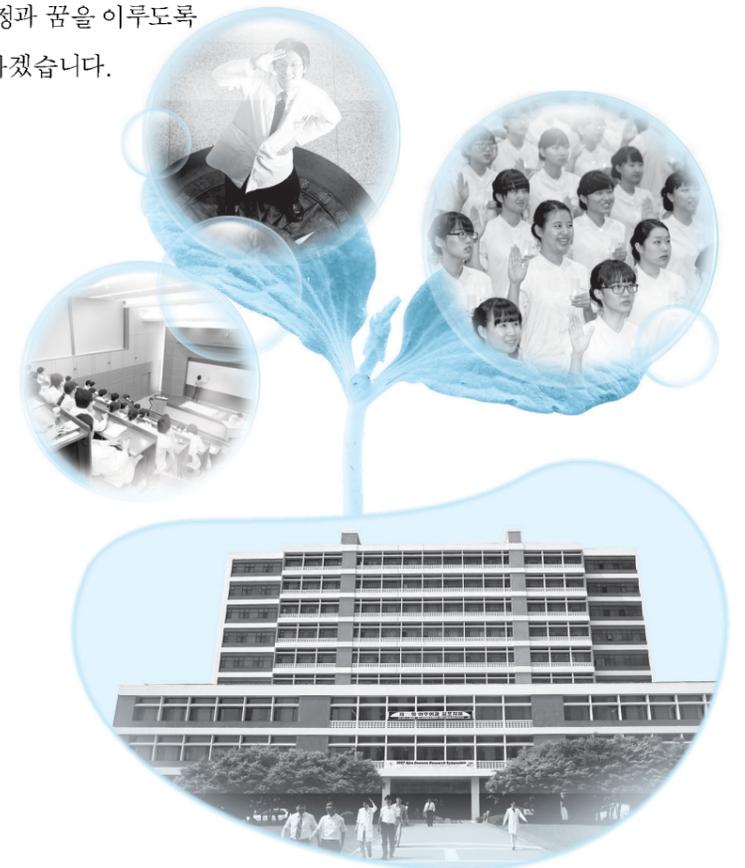
- 2 포커스
경기지역암센터 개소식 개최
- 3 신인재 칼럼
노벨상과 연구중심병원
- 4 책과 감염병 23
상사병과 콜레라
- 6 풍경과 그 인의 사람들
교수님의 열정과 배려 함께 해요!
- 7 **의과대학 특집**
내일이 더 큰 사람,
당신은 아주의대인입니다
- 26 건강 Q&A
머리에 땀이 많이 나서
사회생활이 힘들니다
- 27 **간호대학 특집**
당신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 44 일력병원 탐방
센트럴병원
- 45 AMC News
- 50 의료원 발전 후원명세
- 52 외래진료시간표



아주대학교의료원

당신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한 알의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맑은 물, 밝은 빛이 제공되어야
몇 십 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젊지만 큰 대학을 지향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은
글로벌 의료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 안의 씨앗에 좋은 땅이 되고자 합니다.
젊은 그대의 열정과 꿈을 이루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지역암센터 개소식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24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유비무환 1/3」을 주제로 경기지역암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유비무환 1/3」은 암 발생인구의 1/3은 예방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초기치료로 완치가능하며, 1/3은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능하다는 국제보건기구 WHO의 발표대로 암에 잘 대비하자는 의미다.

이날 개소식에는 2백여 명의 환우와 내·외빈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청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도의회 이삼순 부의장, 국립암센터 이주혁 부속병원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경기지역암센터를 위해 많이 애써 준 경기도의회 이삼순 부의장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김혜경 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유희석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 역시 부인암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암 환자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경기지역암센터는 암의 예방과 치료, 암 관리 사업뿐 아니라 치료가 끝난 환자의 사회복귀 및 적응까지 맡아서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흥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과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 신경숙 작가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고, 특별히 참석자 중에서 20여 명을 추첨하여 작가의 친필사인이 담긴 저서를 제공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은 물론 암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 행사에 앞서 경기지역암센터는 지난 10월 17일에는 「2관역 심포지엄」과 19일 「행복! 걸을수록 커지는 아주 행복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 특별 강연의 서흥관 연자와 이날 감사패를 받은 경기도 의회 이삼순 부의장,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기념촬영 했다.



▲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 저자 신경숙 작가가 친필 사인을 하고 있다.



노벨상과 연구중심병원

올해도 일본이 어김없이 노벨상을 받았다. 매년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고 일본은 노벨과학상을 벌써 15번째 받게 되었다고 하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에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영국의 존 거던 박사와 공동 선정됐다. 금번 수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스피드로 노벨상이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업적을 발표한 후 몇 십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의 만능줄기세포(iPS) 연구는 2007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뒤 6년 만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제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줄기세포 연구는 출발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노벨상을 받을 만한 큰 성과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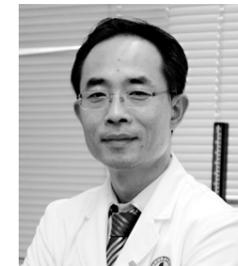
야마나카 교수는 『대지진과 불황에도 불구하고 50억 엔(711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내가 아니라 일본이 노벨상을 탄 것』이라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노벨상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자도 줄기세포를 암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던 터라 줄기세포 관련연구가 노벨상을 받게 되어 반가운 한 편, 줄기세포 관리의 기술상의 어려움과 고비용의 실험비로 인해 연구가 답보상태에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 편 또 다른 일본인인 모리구치 히사시 도쿄대 연구원은 만능줄기세포를 최초로 사람에게 이식하여 성공하였다는 발표를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알고 보니 거짓으로 들끓는 바람에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일본판 황우석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줄기세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벨상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벨상 수상 자체가 우리나라 과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업적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으며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0위를 넘나들고 있으므로 이에 걸 맞는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다시 귀국하여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중심이라는 표현이 노벨상과 가장 근접한 단어로 생각한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였던 포스텍(옛 포항공대)이 금년에 영국 더 타임스 세계 대학 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고 하니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수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50년 미만 역사를 가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학 중에서 1위를 하였다고 하니 매우 의미 있는 경사이다. 의료계도 연구중심을 표방하여야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매우 높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병의 기전을 밝히는 기초분야도 매우 탄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연구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만간 국가에서 병원의 축적된 진료경험을 과학적 활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기에 무척 기대가 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노벨상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상욱 교수 / 제1진료부원장



상사병과 콜레라

콜레라 시대의 사랑

(가르시아 마르케스 1985년 /민음사 2004)



학생은 수업시간에 잘 수 있습니다. 제 수업시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생에 대한 반응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는 학생에 대한 책임의 반은 제게 있기 때문에(오죽 들을만하지 않으면 자겠습니까?) 때로는 가서 깨우기도 하고 옆 학생에게 깨우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나가야할 진도가 너무 많을 때는 누군가 자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눈 뜬 자여, 따라오라. 자는 자여, 난 모르겠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학생들을 깨웁니다. 가장 좋은 술책은 연애담입니다. 십대에 처녀총각 선생님의 첫사랑 얘기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다 커서 스무 살이 넘어도 그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선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원주에 가면 원주 관련 연애담이 나오고 신촌에 가면 신촌 관련 연애담이 나옵니다. 부산까지 학생 강의가 있다면 부산 관련 연애담도 만들어야 할 판이지만 뭐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늘 이렇지요.

-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시지요?
 - 네~~~ (당근이지요.)
 - 이십 대에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 여러 답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사랑입니다.
- 서른이 넘어서 해야 할 일은요? 저는 공부라고 답합니다.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서른이 안 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공부 아니라 사랑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몸은 강의실에 있지만 정신은 이제 훌훌하게 강의실을 떠나 각자 작업 중인 연애 사업을 떠올립니다. 비실대고 있는 성적은 둘째가 되고 진행 중인 연애사업에 비추어 자신이 잘 살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일 뿐이랴구요? 모파상씨의 단편에 「후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순둘 나이든 총각 할아버지의 후회입니다.

- 그는 사랑을 받아 본 적조차 없었다. 어떠한 여자도 완전한 사랑의 포기 속에서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든 여자가 없었다. 그는 기다림의 감미로운 고뇌도, 꽉 잡은 손의 기막힌 떨림도, 결정적인 정열의 황홀함도 알지 못했다. 입술이 처음으로 포개어질 때, 네 개의 팔이 겨안아 유일한 존재, 하나씩 미치다시피 된 두 개의 존재를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초인적인 행복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것인가?

이 총각도 사실은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남몰래, 괴롭게, 그렇지만 안일하게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안일한 사랑에 대한 후회가 예순 넘어 찾아온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이 늘 결혼으로 안전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공작지가 떨어지고 모든 게 평범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고 간직해

주는 사랑에 대해 존경과 감탄의 마음을 배워온 우리는 자신의 변덕과 지조 없음, 가벼움에 대해 비난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차버리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럴 때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 (그의 모습은) 처음으로 군중 틈에서 보았던 모습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와는 달리 사랑의 감동이 아닌 환멸의 심연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망상을 키워왔는지 모르겠다고 놀란 마음으로 자문했다. 「오늘 당신을 보자 우리의 사랑은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르시아 마르케스씨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도망쳐 가며 키웠던 사랑이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헤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리사는 페르미나 다사리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때문에 그가 앓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콜레라 같습니다.

- 아리사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가 말도 없어지고 식욕도 잃어 버렸으며,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을 하얗게 새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편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설사를 하고 푸른색의 물질을 갑자기 토하는 등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방향 감각을 잃고 갑자기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상태가 상사병이 아니라 콜레라의 끔찍한 증세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의사 역시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리사의 맥박이 희미하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얼굴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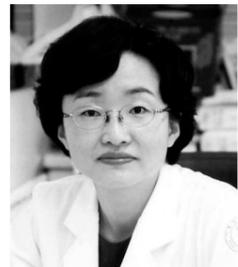
그러나 검사를 해보니 그는 열도 없었고 아픈 곳도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당장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는 아리사에게, 어머니에게 요리조리 캐묻고는 상사병은 콜레라와 증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는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참피나무의 꽃을 달여 먹이라고 처방해 주었으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위기를 바꾸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아리사가 갈구하던 것은 이러한 처방과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의 순교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다.

- 아리사의 어머니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가난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아픈 과거를 지닌, 사십대의 자유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인 양 지켜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다. 아들이 헛소리를 할 때면 달인 약을 먹였으며, 오한을 느낄 때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허약한 상태를 즐기라고 기운을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기회를 실컷 이용하도록 해. 넌 젊으니 가능한 한 모든 고통을 겪어보는 게 좋아. 이런 일이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 물론 우체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생긴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그는 우편물을 엉터리로 분류했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항의를 받았다. 아리사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은 (중략).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애 문제를 성직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애담은 남은 강의의 분량에 따라 짧고 굵게 또는 가늘고 길게 이어집니다. 어쨌든 추상과 실재를 구분할 수 없게 모호하고 아쉽게, 그렇지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 되어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서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강의 시간에 좌우되지요. 콜레라처럼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꼭 치열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십 대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십 대는 뭘 해야 하나요? 그건 저, 육십 되신 분이 가르쳐주세요.

인용: 모파상 단편선(범우사), 콜레라 시대의 사랑(민음사)

위 글에 소개된 도서는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책과 감염병」 전 시리즈는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hosp.ajoumc.or.kr>) 「유명인과 질병」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화 주임교수 / 감염내과학교실



교수님의 열정과 배려 함께 나눠요!

그분을 떠올리면 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진다. 털털하고 소박한 웃음을 가지고 다니시며, 여기저기에 따뜻함을 살짝 놓아둔다. 언제나 진솔한 마음을 흔쾌히 내보이기에, 그분과 함께하면 든든하다.

약 10년 전(의약분업 전) 약제팀 업무는 많은 부분을 「얼마나 빨리 외래환자 약을 신속히 조제해서 투약하느냐」에 매진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한 약을 환자 개인별로 맞춰 조제·투약하고,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협업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약제팀 업무의 변화에 맞춰 여러 임상지원 업무를 처음 준비하고 개시해야 하는 시점에 나는 조연 및 협력자가 필요했고, 그 몫을 그 교수님이 흔쾌히 해주셨다.

우리 팀은 관리 항균제 운영 관련 체계를 재구축했고, 임상약물동력학 분석의 신규 업무를 개시·정착시켰다. 이 과정 중 교수님과 「빠른 소통이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교수님은 아침 회전 이후 혹은 식사 이후 잠깐씩 약제팀에 들러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곤 했다. 때론 「아,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책을 좀 찾아봅시다」하면서 약품정보실 내 책상에서 한참을 뒤적이며 문제의 답들을 함께 찾아나갔고, 특히 전공의들의 처방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수님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전공의들이 따라오도록 했다. 교수님의 「허물없음」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 함께하는 약사들 모두 즐거워했다.

2006년 우리 팀은 교수님과 또 하나의 업적을 만들게 되었다. 바로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운영이다. 식약청은 단년도 연구로 「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모델 개발」이란 과제를 제시했고,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를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약물 부작용에 관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왜 보고를 해야 하는지?」「보고 후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척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 원내뿐 아니라 원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교육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요청하고, 중간보고서 등을 작성하느라고 퇴근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함께 업무에 매진했다. 늦은 시간 교수님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 서로 격려하며 일하던 기억이 새롭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교수님과 함께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CHU(Centre Hospitalier de Toulouse)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약물감

시센터(Pharmacovigilance center)를 방문한 때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으로 약물감시체계가 잘 구축된 유럽 나라 중 한 곳을 방문한 것이다. 교수님은 직접 방문지와는 연락뿐 아니라, 교통과 숙박까지 모두 기꺼이 챙겨주었다. 아마도 프랑스가 초행인 나와 동행한 약사를 배려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교수님과 함께 좋은 경험을 했고, 자투리 여행으로 즐겁고 알뜰하게 툴루즈와 파리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그때 한방에서 온갖 수다와 함께 정(?)을 나눴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열정」이 넘칠까? 아마도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교수님은 항상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도 이것이 필요할까?」「상대방은 무엇이 궁금할까?」「우리는 어떤 것을 더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든 설문조사 문항과 지역약물감시센터 소식지 내용도 타 센터와 공유해 함께 발전하는 모범이 되었고, 현재 국내 약물감시체계는 프랑스의 약물감시체계와 매우 닮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준비를 할 때,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의 1/3을 보내고, 상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 데 나머지 2/3를 보낸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나에게 내밀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갈 것이다. 나의 또 다른 「Heartwarmer」로 지속될 그분은 감염내과학교실의 최영화 교수님이다.



이영희 팀장 / 약제팀



내일이 더 큰 사람, 당신은 아주의대인입니다

Professionalism

Competence

Self-development

Leadership

아주의대가 특별한 이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아주 특별합니다. 학년 당 학생 수 40명, 역사는 겨우 20년 조금 넘는 이 조그만 신생의대가 왜 특별하다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의대는 가능성이 제일 큰 학교입니다.

의과대학은 작지만 병원은 아주 큼니다. 1,100병상을 갖고 있고 전임교수만 250명이 넘는 아주대학교병원은 해마다 70명 이상의 인턴을 선발합니다. 우리 아주의대 졸업생들은 모교 병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모교 교수가 될 가능성도 물론 가장 높지요. 졸업생의 모교 교수 임용률들과 여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아주의대입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할 전문 분야에 자신의 희망대로 진출할 기회가 많다는 것은 아주의대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아주의대는 항상 앞서 나가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교수와 학생입니다. 때문에 좋은 것,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이 원한다면 망설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의학교육에 의료인문학을 처음 도입하였고, 통합교육과정, 문제중심학습, 봉사실습, 의학연구방법론 교육 등 수많은 혁신적 교육이 우리 아주의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은 수시로 학교에 전달되고 반영됩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상담을 교수와 선배들이 1:1로 맡는 답십반 제도, 성적을 관리하고 학습부진학생들을 도와주며, 소그룹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쉼터 제도도 자랑거리입니다.

아주의대는 또한 굉장한 부자학교입니다.

아주의대의 입지적 위치가 막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 부속병원이 의

과대학과 붙어있습니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가 잘 되고 학생강의와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한 캠퍼스 내에 간호대학, 약학대학, 경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거의 모든 학부를 거느린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수 있고, 대학이 제공하는 수많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들어설 CJ 중앙연구소를 비롯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것도 신약개발 등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아주의대는 사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아주의대의 가장 큰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리더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주의대 출신 임상사라면 의학적 지식도 풍부하고 술기도 뛰어나며, 투철한 윤리관과 전문가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고 지도력과 관리 능력까지 갖춘 별 다섯 개짜리 의사(The five star doctor)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플로리다의대, 게이오의대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받는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시야를 넓혀 갑니다. 의학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 졸업 전에 박사학위를 따는 의과학자 양성 과정(M.D.-Ph.D 과정)을 선택하고, 혹은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후 3년간 기초의학교실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면 교수로 임용해서 다시 2년간 해외연수를 보내는 국내 최초의 획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개교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기초의학 연구에 투자한 결과, 아주의대의 기초의학 연구는 연구진의 규모나 연구 성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연구기관인 SRC와 MRC 모두에 선정된 유일한 의과대학이며 이외에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연구센터와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아주의대를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주의대의 자랑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학교의 역사나 평판, 그리고 외형적 크기에 관계없이,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학생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우리 아주의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선택이 탁월했음을 우리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임기영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그대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이 진정으로 「명량」할 수 있기를 ...

오 후 내내 비가 내렸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교정의 계절을 곱게 채색했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잎들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꽤나 차가운 바람이 불고, 두터운 외투를 꺼내게 되겠지요. 아름다운 한 계절이 또 이렇게 우리 곁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란 계절을 앞두고면 저는 꼭 얽힌 선생님 앞에서 검사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자네는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볼까?」라는 질문에 답할 시간이 오는 거죠. 괜히 못 들은 척 짐짓 판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 분께서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1교시 숙제 검사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례인 2교시 반성문 작성의 시간을 겹쳐히 준비해야죠. 매년 비슷한 아쉬움, 동일한 후회, 그게 그거인 미련이 되풀이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일관되게 어리석음만으로 되풀이돼도 정말 관찮은 건지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정말 들리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작년에 썼던 반성문을 다시 꺼내 날짜만 바뀌 제출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한 계절이 스치듯 우리 곁을 지나치는 것처럼, 빛나는 청춘의 시절 역시 그렇게 지나가 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괜히 타인과 세상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물쭈물 하는 사이 청춘은 후다닥 지나가 버리죠. 동반자처럼 느긋하게 같이 걸어간다는 느낌 보다는, 서둘러 앞서가는 누군가를 따라 잡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어느새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죠.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로서의 수련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는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입시에서 성공을 거둔 기쁨과 성취 속에 대학에 들어온 스무 살의 새내기, 이후 6년 동안(혹은 그 이상..... ^^;) 친구들과 똑같은 의학 교육을 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얻으면, 1년 동안 친구들과 똑같은 인턴 수련을 받고 이후 4년 동안 동료들과 똑같은 전공의 수련을 받습니다. 남자들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동안 남들과 똑같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직으로 복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최근에는 수련을 마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2~3년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임상 강사(fellowship) 과정을 거칩니다. 즉 길게 보면 15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을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거치게 됩니다.

전문의로서 사회에서 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경주하듯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삼십대의 어느 언저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슨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이름 앞에 붙고, 많은 경우 누구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상태일 겁니다. 줄곧 「부모 형제」를 기입하던 이력서 가족 관계 칸에 배우자의 이름과 더불어 한 두 명의 아이 이름을 써넣을 수도 있겠군요. 청춘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들 흔히 말하지만(그 명제가 정말 사실이었, 그냥 다 같이 혼 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저입니다만.....), 어쨌든 나 이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청춘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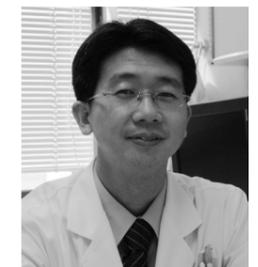
그저 삶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흐른다는 신세 한탄을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의대생의 인생은 그 준비 시간이 너무 길고 고달프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는 못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당연한 얘기

들을 굳이 시간 내서 말할 필요도 또 시간 허비하며 들을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 숨겨진 함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시간들의 또 그 공간들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육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방식의 평가를 받습니다.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도 같고, 준비하는 과정도 같으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대개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잘 짜인 커리큘럼으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불행히도 이런 동질성은 「경쟁의 구조」와 「낙오에 대한 압박」 속에서(사실 이 둘은 언제나 한 몸이지만)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구요.

물론 이는 일정 부분 필요악 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교육에선 상당 부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효율과 표준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또 아무리 착한 학교라 해도(저는 우리 학교가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이런 동질성의 문제를 피할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들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이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되어 질 수 밖에 없다면 대체 거기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각자 잘 발견해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청춘은 어떤 결핍을 갖게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더하여 그런 결핍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촘촘하게 내내 그러며 지낼 필요는 없겠지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때론 진지하게 혹은 철저히 자기 삶을 대하는 일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쿨하다는 것의 미덕은 그 정신(강인하되 간결함)에 있지 어설픈 포즈 따위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그저 살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성공한 청춘일까요? 청춘의 시절이란 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 일일까요? 인간의 삶을 디자인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왜 우리에게 굳이 청춘이란 걸 주었을까요? 마치 선물처럼 선심 쓰듯 이요, 공짜가 아니라 걸 눈치 채지 못할 수 있게 그렇게 슬며시 놓고 갔을까요?

다시 읽어보니 후배들께 보내는 오늘의 제 편지엔 무성의하게도 질문만 가득 담겨있네요. 「대학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야 한다!」는 선생님의 성실한 답안 혹은 선배의 친절하진 안내 지침을 드려야 할 지면일 텐데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역시 답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변명 같지만 이런 물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 옳았던 답이 있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반드시 옳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나」와 「나를 제외한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삶을 이해하거나 완성해 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 정도예요. 지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는 게 거기까지여서 그 정도 밖에 더 말할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부디 그대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이 진정으로 「명량」할 수 있길 바라며, 그럼 안녕히~ (^_^)



임승관 교수 / 감염내과학교실

Five-star doctor 만들기 - 임상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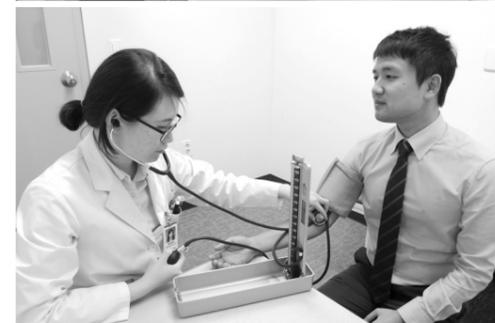
의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의원 혹은 의사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지는 이미 널리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터이라 여기서 그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포한 「Five-star doctor」에 의하면 의사는 1 치료하는 능력, 2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환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 5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이상적 의사라고 하였다. 참으로 이상적이고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의사상은 이런 것임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의학교육에서 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9년부터 도입된 의사국가고시의 실기시험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학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의료술기 및 임상술기, 즉 환자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실제 이러한 평가 과정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실행되고 있던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실기시험 도입이후, 필기시험에 합격은 했으나 실기시험에 낙방하여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1년 후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그 중요성이 필기시험과 버금가는 수준이라 하겠다. 더 이상 몇 가지 의학지식을 외어 의사가 될 수 없고 의학적 추론과 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식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불안, 공포, 고민을 인간과 인간적 관계로서 이해하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임상교육센터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육센터(Ajou Center for clinical Excellence, ACE)는 2011년 8월 18일 개관하였다. 물론 그 전에도 소규모의 임상교육실이 있었으나 작년에 드디어 새건물을 지어 이사한 것이다. 이곳은 의사국가고시원과 똑같은 세팅의 12개의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의사소통교육, 의학면담교육, 임상술기교육, 임상실습, 임상종합평가, 의사국가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매월 평균 20~30건의 의과대학 학생 실습, 교육, 정기적인 임상수행능력평



가, 임상과 연구실습 및 워크숍, 회의 등 임상실습교육 및 평가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의학교육은 더 이상 강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확대될 것이며, 임상교육센터는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 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임상교육센터는 임상실습교육에 필요한 모형, 실습장비, 모의환자, 녹화·음향설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상실습입문 성격의 ICP과정에서는 피드백장비(녹화, 모니터링 등), 가상 진료 공간, 실습모형 및 모의환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실습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간 2회의 임상교육센터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학과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환자면담능력 교수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모의환자 교육, 피드백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적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상적 의사인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그런 의사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의사가 되려는 자들은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치료하는 능력,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 임상교육센터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의사는 환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과 경영능력까지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그 교육을 받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방방곡곡에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느새 대한민국은 세상이 원하는 이상적 의사, 「Five-star doctor」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김미란 교수 / 임상교육센터 소장

우수한 연구업적의 산실



이주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연구센터는 2011년 12월부터 실험용 동물인 마우스, 랫드, 토끼들의 본격적인 사육을 시작하여, 연구자들의 동물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공식 이후 1년 8개월 여 만에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4,268.39㎡, 1천290여 평) 규모의 건물의 3~4층에 실험동물연구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실험동물연구센터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동물 사육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안전도 고려한 환경에서 윤리적인 동물실험(동물보호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시설에 비해 좋아진 환경으로 사용자들이 만족함은 물론, 동물들도 훨씬 더 편안해 보인다. 즉, 털에는 윤기가 흐르고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인 한 곳에서 빙빙 돌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처럼 고품질의 실험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연구업적을 내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증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점차 늘어가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이주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마우

스, 랫드, 토끼 뿐만 아니라, 개나 돼지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이 점차 증가하여 첫 달에는 가동률이 10%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50% 가까이 된다. 3층은 중·대형동물구역으로 최대 105마리의 토끼와 10마리의 개를 사육할 수 있으며 수술 및 부검이 가능하다. 4층은 소형동물구역으로 특정 병원체가 없는(Specific Pathogen Free, SPF)구역, 청정 설치류 구역, 감염동물실험실, 동위원소실험실, 세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수술 및 조직 채취가 가능하다.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병원체가 없는 고품질의 마우스만 있어서 최고의 청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SPF 구역에는 여러 종류의 형질전환(Transgenic)마우스 및 Knock-out (유전자결여)마우스도 있다. 청정 설치류 구역은 마우스 구역과 랫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PF 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 최대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실험동물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구역마다 실험실이 마련되어 간단한 수술, 조직채취 등의 간단한 실험은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감염동물실험실은 이전까지 본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동물에 대한 감염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위원소실험실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체 내 분포를 측정하



거나 소동물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동위원소실험실에서 실험동물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한다. 영상자료를 얻은 후 단기간 동물을 보관하거나 장기를 적출한 다음 방사능을 측정하고 방사능의 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사체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이주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1㎡ 규모의 멸균기 2대, cage 세척기, Individually ventilated cage(IVC) 시스템 등의 고가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IVC 시스템은 각각의 사육장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별도의 순환시스템으로서 감염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면적의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IVC 시스템을 더 구입하면 사육하는 동물의 수가 증가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모두 IVC 시스템으로 모두 교체할 것이며, 실험 장비를 더 구비할 예정이다.

이주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실험동물연구센터를 이용하려면 동물실험신청을 하고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되면 사육 및 실험공간을 배정하여 실험이 진행된다. 실험동물연구센터에서 고품질의 실험동물로 실험을 수행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우수한 연구업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증축이 더욱 앞 당겨지고, 첨단 실험 장비를 더 많이 구비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동물실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되어 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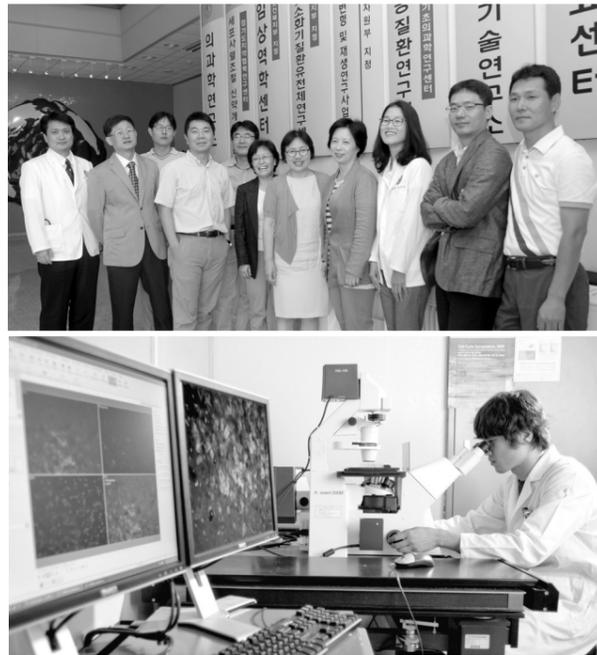
김경민 교수 / 실험동물연구센터 소장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Chronic Inflammatory Disease Research Center, CID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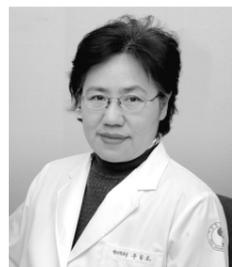
2012년은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의 역사에 뜻 깊은 한해이다. 본 센터는 2003년 과학기술부/과학재단이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센터로 선정되어 9년간, 7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센터를 운영해 왔다. 2012년 9년간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 엄격한 선발과정과 11.6: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시, 7년간 7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본 센터는 그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일부는 아직 정확한 병태생리조차 밝혀지지 않은 치매와 암 등을 포함하는 만성 및 퇴행성질환의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하여 「염증반응의 조절을 통한 접근」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난 9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 최상위급 논문발표 등의 우수한 연구실적도 자랑할 만하나 무엇보다도 염증관련 중개연구가 가능한 우수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인력을 재검비하여 연구수준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센터로의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을 최고의 실적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2기의 연구집단은 생리, 약리, 생화학, 뇌과학 및 인포매틱스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융합연구 및 중개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인포매틱스, 메타볼로믹스와 같은 최근 상용화 된 최신 연구기법을 전공한 신진연구자들이 합류하여 의과대학에 걸맞는 임상적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기 센터의 연구는 3개의 총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총괄과제는 「염증신호조절 및 네트워크 연구」로 주일로(약리학교실), 김은영(의과학연구소), 최용준(미생물학교실), 우현구(생리학교실)교수가 염증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총괄과제는 윤계순(생화학교실), 강엽(의과학연구소), 박태준(생화학교실)교수가 맡아 간염증에 대한 연구로 「간염증 질환에서 만성염증반응의 발생 및 제거기전 연구」를 진행한다. 3총괄과제는 「염증유도 뇌미세환경과 뇌질환의 상호작용 연구」라는 주제로 조은혜(약리학교실), 백은주(생리학교실), 박상면(약리학교실), 김병곤(의과학연구소), 서영호(약리학교실)교수가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약 70여 명의 연구조교수,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학생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하여 염증신호 유전체를 구축하고 염증미세환경 조절인자와 질환에 따른 특이적 염증반응 제어타겟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치매, 파킨슨병과 악성종양을 포함하는 만성염증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지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인체 적용화 연구의 기반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성염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국제적인 경쟁우위를 점유하여 국제적인 연구센터로 비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주일로 교수 /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소장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2003년 인간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이 처음으로 해독된 후, 21세기는 바이오로 유전체 연구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의과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전체를 안정하게 복제하고 배분하는 조절과정들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해상도의 실시간 형광현미경 촬영 기술을 통해 염색체의 응축, 이동, 배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FRAP/FRET 등의 기술을 통해 살아있는 세포에서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DNA의 손상/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조절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미 100년 전에 암 조직에서 보고되었던 염색체 수나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DNA 병변이 동반되는 유전체불안정성 질환의 분자적 병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볼 기회를 새롭게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2011년 9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를 출범했다.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선도 우수과학 연구센터(SRC: Scientific Research Center)로 선정되어, 향후 7년간 약 8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 9인(조혜성, 최경숙, 이종수, 이재호, 권명희, 김유선, 강호철, 임준희, 지재훈)과 타 대학교수 3인(이창우, 김홍태, 차혁진)이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80여명의 연구 인력이 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본 센터는 유전체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절 유전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기초기전연구팀과 유전체안정성 조절 유전자를 없앤 knockout mice를 개발하고 유전체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암 발생 과정을 추적하는 동물모델연구팀, 그리고 유전체불안정성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치료전략연구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소속의 전문가들은 본 센터의 연구 주제인 유전체불안정성 기전연구 및 관련 질환제어방안 연구에 있어 선순환적 연결고리와 기술적 공조를 통해 우수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연구센터로 발전하고자 한다.

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월례 세미나를 통하여, 내외부의 우수 연구자들 간의 밀접한 연구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회의 심포지움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본 센터의 연구활동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인턴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원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부 학생들이 본 센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학원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센터의 연구를 우리 아주대학교 연구진에게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 센터는 밝게 열려 있다. 늘 열심히 하는 우리 연구팀이 불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같이 하고자 하는 자제로 열려 있다.



조혜성 교수 /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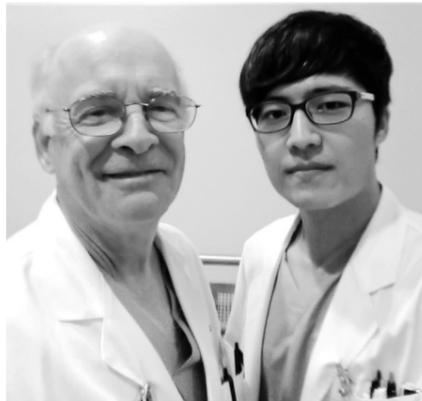
미국의 의료 환경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기회

올해 여름, 미국 플로리다 주의 소도시 게인즈빌(Gainesville)에 위치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병원(Shands hospital at the University of Florida)으로 한 달간 실습을 다녀왔다. 해외 경험처럼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선택에 망설임은 없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샴페인(Champaign)이라는 도시에서 중학교 1년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었고, 실습 학생이 되어 안에서부터 의료시스템을 체험해볼 수 있었던 기회는 큰 행운이었다.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시골 소도시의 분위기는 샴페인과 게인즈빌이 놀랍도록 흡사해 그것 자체로도 재미난 체험이었다.

미국의 의사 수련과정은 대한민국과 조금 다르다. 대부분이 학부 때 생물학을 전공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한다. 인턴과정이 없어 병원으로 간 후에 바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순환기 의사(Cardiologist)가 되고 싶다면, 내과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공통으로 거친 후에 순환기 부서로 들어가 펠로우로 3년을 지내야 한다. 여기서의 펠로우 개념이 한국에서의 레지던트 개념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세부 전공으로 펠로우 과정까지 마치면, 소위 우리나라 전문의처럼 밖에 나가 practice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졸업 후 처음 병원에 취직하는 과정이 재미있는데, 드넓은 지역에 병원과 학생 수가 많다보니, 병원마다 지원날짜가 다를 경우 졸업생들이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과거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병원 수준이 어느 정도 평등화되어 있고 지역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 같다. 요즘은 지원자가 가고 싶은 병원의 리스트를 지망 순으로 적어내고, 병원도 동시에 받고 싶은 의사의 리스트를 지망 순으로 적어내면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계산해 배정을 한다고 한다. 교수님께서 한국은 어떻게 하나는 질문에 막상 대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주로 모교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거나, 서울에 있는 크고 유명한 병원들로 집중되는 것 외에 다른 병원들은 인턴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순환기내과는 입원환자를 받는 Medical service team, 협진환자만 집중해서 보는 consult team, 그리고 각종 procedure를 행하는 Cath lab과



▲ Dr. James A. Hill 교수와 함께

EP study room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엔 독립적인 협진 부서가 없기 때문에 consult team에서 한 달간 실습을 했다. Consult team은 교수님 한 분과 펠로우 선생님 2명(1년차와 3년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3가지다. 첫 번째는, 미래에 Shands 병원에서의 수련여부였고 두 번째는, 장래희망이 순환기 의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미국에 와본 적 있는 자가 세 번째다. 보통 미국 의대생들은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병원의 부서에 가서 Subinternship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받은 질문들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일과는 꽤 바쁘고 빡빡했다. 협진 팀이 쓰는 방이 따로 있고 펠로우 선생님 2명이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5시까지 일한다. 학생으로서 꼭 같이 출퇴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지만, 결국 비슷한 시기에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협진이 비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협진 케이스를 1개 받으면 우선, 아주대학교병원의 SMART에 상응하는 Epic이라는 EMR 프로그램으로 같이 환자 파악을 한다. 그 후, 바로 환자를 찾아가 10분에서 20분정도 대화를 하고 신체진찰을 한다. 펠로우 선생님이 답이나 EKG에 확신이 없으면 EP study room으로 찾아가 그곳의 펠로우 선생님들과 교수님과 열띤 토론을 15분정도 벌인다. 환자파악에 이동시간까지 합치면 한 환자를 보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본 환자가 2~3명 쌓이면 비로소 교수님께 연락을 하고 같이 본격적인 회진을 한다. 스테이션에서 환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회진을 하는 데, 교수님은

환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펠로우에게 처치 등에 대해서 꽤 날카롭게 질문을 한다. 펠로우 선생님의 생각과 교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많은데, 주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펠로우 선생님도 본인 생각을 말하며 토론 끝에 결론에 다다른다.

처음엔 학생으로서 위의 과정에 끼어들어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틀째부터 협진환자가 많아지면 펠로우 선생님이 혼자 환자에게 가서 파악해오라고 시키기도 했고,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다. 프레젠테이션 첫 날엔 교수님께서 폭풍같이 질문을 하셨다. 회진 때에도 교수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시거나 질문하실 때가 점점 많아졌다. 인권문제에 예민한 미국에서 학생으로서, 더군다나 동양계 외국인으로서 당당히 실습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펠로우 선생님들이 환자 보는 앞에서 내놓고 한국에서 온 동료라 소개하고 티칭해줄 때도 많았다. 모든 신체진찰은 따라 해볼 수 있었고, 어떤 환자도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불편해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다. 환자들의 자세도 꽤 인상적이었는데, 거의 모두가 본인이 무슨 병이 있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비 의료인인 환자가 『I had several episodes of atrial fibrillation in 2009 so I'm on Coumadin, beta-blocker. Think it was Lopressor.』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의학용어가 기본적으로 영어이고, 예를 들어 번역어인 심방세동이 미국사람이 atrial fibrillation을 듣는 것처럼 한국사람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협진이 없을 땐 주로 펠로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같이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로 펠로우 선생님들은 편하게 대해줬으며 학생으로서 그들을 호칭 빼고 이름으로 부르게 했다. 생일파티에 초대 받아 친구처럼 같이 파티를 한 적도 있다. 전반적인 병원에서의 수직관계나 분위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교수님을 포함한 워싱턴대에겐 모두가 존경을 표했고, 컨퍼런스 방에 생존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도 감탄스러웠다. 매일 점심 때 갖가지 주제의 컨퍼런스가 열릴 때마다 주로 높은 교수님들이 코멘트와 질문을 하시는 모습은 한국과 흡사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순환기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Caliber라고 불리는

콤파스같은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교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어떤 심전도든 볼 때마다 Caliber를 꺼내 QRS과 P파의 간격을 일일이 재며 확인한다. 실제로 효과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복잡해 보이는 심전도도 Caliber을 갖다 댄으로써 풀리는 것을 구경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여러 심전도를 모아 스크린에 띄워 놓고 매주 심전도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 때도 큰 나무로 된 Caliber가 준비돼있는 것을 보고 혼자 웃었다. 순환기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심전도에 달려들어 토론하고, 컨퍼런스 맨 감별진단만 6~7개정도 나올 때까지 토론을 한다. 기본과 원리에 충실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해외교환학생프로그램에 있어서 영어는 잘하면 말할 수록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에서 사는 1년 동안 전교에 한국인이 5명 정도 되는 학교를 다녔고, 하루 종일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매주 미국인과 한국인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으며 영어공부에 매진한 적이 있다. 한국에 돌아와선, 명덕외고 영어과를 졸업해 스스로 영어와 꽤 친숙하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대학 와서 6년 동안 영어를 듣지도 산 후, 이번 미국 해외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영어와 관련해 스스로 운동 반성만 하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관심이 있어 준비하는 후배학생들에겐 영어공부에 틈틈이 매진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방학 때 잠깐 학원 다니는 것이 영어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영어는 스스로가 접할 기회를 늘려 읽고, 듣고,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해야 하는, 혼자 많이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한다. 발음은 영어권의 나라에서 오래 살아야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가 영어를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후배 학생들도 미래에 해외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를 지원해주는 임기영 학장님, 신승수 부학장님, 임인경 전(前) 학장님, 김재근 교무부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미국에서 저희를 돌봐 주신 폴천(Paul Chun)명예교수님과 다이앤(Diane Chun)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서양문명의 중심지이자, 한국전쟁 당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여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에 SCOPE라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실습을 하고 왔다. SCOPE는 세계 의대생 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IFMSA)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 중 하나이다. 세계 의대생 연합(IFMSA)은 1951년 유럽권의 의대생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한국은 올해 104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IFMSA의 위원회 중,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는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매년 8500명 가량의 전세계 의대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주대학교가 참여하여 3명의 학생이 터키와 스웨덴에 가서 4주간의 병원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배정된 이스탄불 세라파사(Istanbul Cerrahpasa)병원은 터키의 중심지인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도 블루모스크가 있는 구 시가지에 보스포루스 해협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세라파사병원은 1967년에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으로써, 유럽 내에서도 50위권 안에 들고 그 규모도 2500병상이 넘을 정도로 크며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 오는 유명한 병원이다.

나는 실습기간 동안 응급실을 배정받아서 실습을 들었는데, 내가 교환

학생을 지원 할 당시 한국에서는 응급실 당직 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스템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였기에 응급실로 지원하게 되었다. 세라파사병원의 응급실은 병원의 규모에 걸맞게 내과, 소아과, 외상, 중증 4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 내과파트에 배정이 되었다.

터키의 응급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의료진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비슷하였다. 내가 간 곳은 심지어 국립병원이다 보니 에어컨도 없는 병실에 환자들이 축 쳐져 있고, 시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에 전쟁영화에서 보던 진료소 같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시설과는 달리 의료의 질은 상당히 높았다. 내과 응급실의 위층에는 내과병동이, 외상 응급실의 위층에는 신경과, 정형외과 병동이 붙어 있어서 바로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과의 전문 의사들의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응급실과 가장 다른 점은 터키에서 초진을 보고 대부분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인턴 의사들이었는데, 이 인턴들은 사실 의과대학 6학년 학생들이었다. 환자가 오면 초진을 하고, EKG나 혈액 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를 처방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실습면허를 정부로부터 받고 병원실습을 한다고 했다.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

비는 무료이고 심지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월급도 받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예진을 하거나 신체진찰을 할 때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 환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이 참관하는 것을 꺼려하는 환자도 있어서 실습을 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터키 학생들은 실습 면허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진을 하거나 여러 술기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터키어를 못해서 문진은 할 수 없었지만 나도 실습기간 동안 인턴의사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술기를 직접 해보거나 신체 진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또 하나 달랐던 부분은 국립병원의 응급실은 전부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터키에서는 1992년부터 일정기준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린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터키에 있던 4주간은 라마단 기간이었다. 라마단은 이슬람 국가의 명절로써,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먹는 기간이다. 가족들끼리 저녁 6시쯤 모여서 종이 치자마자 낮 동안의 허기를 채우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다. 4주 동안 실습 뿐 아니라 카파도키아나 파묵칼레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인접 국가인 불가리

아에 다녀오기도 했다.

흔히 말하는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 아닌 영어도 잘 통하지 않은 터키에 간다는 것이, 가기 전에는 불안하였지만 오히려 색다른 의료환경을 체험하고 실습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올해부터는 한국이 IFMSA의 정식회원국이 되고 많은 국가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학교에서 4학년 때 선택실습으로 진행되는 해외실습에 비해, SCOPE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로만 운영이 되기에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다방면으로 한국에서 도와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는 숙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비싼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참여한 SCOPE의 경우는 본교로 온 외국 학생의 숙식과 교육비용을 아주대에서 제공하였기에, 터키에서 나도 같은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허가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준 아주대학교에 감사 드린다.



최성욱 학생 /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실습경험



나는 IFM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세계의대생연합총회)의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 해외교환학생프로그램)를 통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4주 동안의 교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흉부외과에서, 다음 2주 동안은 순환기내과에서 실습을 했다.

첫째로 흉부외과에서 수술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특히 심장 동맥 우회로 수술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아침 회진뿐만 아니라 오후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회의에서의 발표 자료는 항상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다. 회진을 도는 동안에 교수님들께서는 몇 개의 환자 증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핀란드에서는 보기 드문 흥미로운 증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끔씩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환자 증례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자료를 준비하여 가르쳐 주기도 했고 이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루는 서울에서 열린 흉부외과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다.

순환기내과에서 처음 첫 주 동안에는 초음파실에서 실습을 했다. 나는 핀란드에서 이미 순환기내과 시험을 치르고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서 초음파 소견은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초음파 소견을 잘 볼 수 없었기에 이곳 순환기내과에서의 실습은 큰 공부가 되었다. 또한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은 영어를 무척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주로 성인 초음파 증례들을 보다가 하루는 소아 초음파 증례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매우 흥미로웠다. 순환기내과에서의 두 번째 주에는 혈관조영술을 관찰했는데, 교수님들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4주 동안의 실습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핀란드와는 조금 다른 질환들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제가 순환기내과 실습 중에 보았던 프린츠메탈 협심증은 핀란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병인데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내가 본 거의 모든 협심증은 프린츠메탈 협심증이였다. 또한 한국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자발 기흉 이환율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핀란드에서는 보지 못했던 꽤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버디 학생이 소개해 준 다른 외국인 교환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 학생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수원과 서울 일대를 돌아보았고, 실습이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 더 머무르며 관광을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줬으며, 항상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한국음식은 매우 맛있었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을 했다. 4주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Elina Maaria / 터키 투르쿠대학

내면의 양식 의료인문학 특강



이 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두 학기가 되어가는 신입생으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숨 가쁘게 진행된 학교생활이 꿈만 같이 지나갔다. 신입생 환영회, 학번 엠티 그리고 축제 등 즐거운 시간들이었지만, 정작 의학부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자기 성찰을 충분히 못한 점이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자기 계발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였을까……. 1학년 과정 수강과목인 「의료 인문학 특강」은 나뿐만 아니라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관심이 가져지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의료 인문학 특강」 수업은 의과대학 학장님 외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매주 한 회씩 진행하시는 특강 형식의 수업으로 예과 1학년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의사상을 건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이나 경험, 예술적 안목을 바탕으로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학습, 현장 체험 학습을 주로 하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수업이다. 이제까지 공부에 시달리고 시험에 짓눌리며 근사안적으로 살아왔던 「의대 새내기」들에게 세상은 얼마나 넓고 멋있으며,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은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눈을 띄워 주시는 명쾌하고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수업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의과대학 임기영 학장님께서 진행하신 「미리 해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다. 학생들의 발표로 구성된 수업으로 후에 화이트 가운을 입고 하게 될 의사로서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주관으로 써보고 그것을 발표해 보는 시간이었다. 12학년 예과 1학년 친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적 동기 부여에 의해 의대를 오게 되었는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살겠다는 진지한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이 수업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 또한 나의 개인적 경험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재수 시절에 「과연, 의대를 목표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꼭 맞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몽골로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있는 상태로 간 것이 아니기에,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원활히 진료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을 주로 했다. 기본적인 치료만 받아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빈민들 혹은 아이들이 영하 40도의 추위 아래 치료를 받지 못해 동상에 걸리고 골절이 상해진 환자들을 당신의 사비를 털어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진로를 확고하게 결심했다. 「미리 해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길진 않았지만 몽골에서의 절절했던 마음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4주차 수업에서는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선한 「노인 결연식」에 참여했다. 「인문학 특강」 수업에 이어 아주 의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의대생-어르신 간 일대일 결연」이다. 12학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에서 케어하시는 노인분들과 우리 12학번 의과대학생 간에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 어르신들의 불편하신 점을 도와드리거나 말벗을 해드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우울증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예비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상태증진(비록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고 과연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으며 어르신들도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더니 만남의 횟수가 더해지면서 어르신들께서 우리를 반기며 마치 손주를 기다리듯이 굳것질거리도 준비해 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지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밖에도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많지만, 나중에 긴장되고 숨 가쁜 의사로서의 삶에서도 한 번씩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음악회 감상, 미술 전시회 관람 등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문화 예술 부문에 문외한인 우리들에게 다양하고 깊은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좋았던 것 같다.

이러한 체험 학습을 바탕으로 병리학교실 이기범 교수님과 「연주회 관람 후기」를 진행했는데, 어떠한 형태든 공연 혹은 전시회를 보고 우리의 관람 후기를 발표 형식으로 공유해 보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는 익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주대에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그의 비디오 아트 작품들을 관람하고 각 작품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작품 속에 담겨있는 아티스트의 생각을 서로의 안목으로 감상하고 자유롭게 토론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기의 현대미술의 거장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예술을 통해 인간에게 마음의 양식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면, 나는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 그러면서도 마음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의료인문학 특강」 첫 수업에서의 「미리 해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되뇌어 본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머리에 땀이 많이 나서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Q 다한증으로 인해 힘들어서 예전에 여러 번 병원을 가보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수술이나 치료는 어렵다, 안된다」 하십니다. 땀의 부위는 얼굴이 아닌 머리입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얼굴부위는 수술이나 치료는 가능하고, 머리부위는 수술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온영동법, 신경차단약물주입법, 교감신경차단술과 같은 방법은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다한증은 정상적인 발한보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과도한 발한으로 일상생활의 곤란함을 줄 정도로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교감신경계를 포함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차성 다한증과 그 이외의 다른 질환에서 기인하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뉘게 되며 손 발 겨드랑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국소다한증과 머리 얼굴 몸통에 나타나는 전신다한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소다한증의 경우 시술등의 방법이 있으나 전신다한증의 경우 경구약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외래를 방문하시어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도원 교수 / 미취통증의학교실〉

신경통증클리닉 외래 031-219-5896

당신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간호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성장하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이 행복해 하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역사는 짧지만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발전상에 발맞추어 200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수석합격을 포함하여 2012년 현재까지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영예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현재 아주대 간호대학은 두 개의 학사학위과정 이외에 전문간호사와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5개 전공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명실 공히 학부에서부터 최고 학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여 우수 간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간호대학이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응용학문으로써의 간호학의 특성을 살려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간호역할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은 물론 인성을 겸비한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최근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예방을 강조하게 되면서 간호사에게는 이전 어느 때보다 기회와 도전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주대 간호대학은 2012년 들어 교수자 관점의 지식위주 교과과정에서 학습자 관점의 역량위주의 성과기반 교과과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학생이 배움을 통해 해 낼 수 있는 것 즉, 학생이 교육을 마친 후 보여주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은 다양한 교수법을 새로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후 아주대 간호대학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생이라면 차세대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핵심실기역량을 갖춘 간호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 아주대 간호대학의 강점은 Lab실습을 위한 임상수기센터가 대학건물내에 있어 기본간호실습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JCI(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캠퍼스 안에 함께 있어 학교와 임상간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현장실습을 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취업 후에도 현장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졸업생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능력있는 실무자만이 아닙니다. 치료와 함께 예방이 강조되면서 대상자와 가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의 능력, 근거중심실무가 요구되면서 연구근거를 평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이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 간호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으며, 졸업조건으로 졸업논문을 제출케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직접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영어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어학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 간호대학에 유학 온 학생과의 교류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다양한 해외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 속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의 아주대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 즉, 병원(임상간호사), 지역사회(간호직 및 보건직 공무원, 산업장 간호사), 초·중·고등학교(보건교사), 정부 보건기관 및 단체(혈액원, 건강검진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원 및 복지관), 제약회사와 연구소(연구간호사)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수나 전문간호사 등 보다 전문적인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보건진료원, 조산사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대 간호대학은 전 교수가 합심 노력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써의 아주대의 명성에 걸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갈 것입니다.



박지원 간호대학장

학생의 능력을 Up & Up! 하는 간호대학 교육과정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교육의 질과 환경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써 학생의 능력을 Up & Up 하여 미래의 간호인재를 준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보다 다양해지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넓은 경험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율적 학습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고 수업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특히 본 대학은 국내 굴지의 부속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전문가로서의 실무능력을 갖추는 데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인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1학년부턴 차근차근 학문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1학년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2학년은 간호학과 관련된 간호전공기초과목을 학습하며, 3·4학년은 주요 전공필수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공기초과목으로는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등이, 전공필수과목으로는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본 대학에서는 2학년이 되면 「의료현장적응실습」과목을 통해 2주간의 의료봉사실습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여 간호인으로서의 봉사적 자질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학년부턴은 임상에 나아가 실제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임상실습을 시작하며, 4학년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3학년때부터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직접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졸업논문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고 있다.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과는 별도로 의학문헌정보센터가 대학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4학년이 되면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자율학습실은 대학 설립 이래 11년 연속 100% 국가고시 합격의 신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직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졸업과 동시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려하고 있으며, 2급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아주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

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해마다 진행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발판과 준비된 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외에도 대학 속에서 보다 의미있는 삶의 목표를 준비하도록 한 지도교수가 1학년부턴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인성 및 학습지도를 하는 담임반제도와 짝선배 제도, 방학 중에 선배들로부터 지도받는 학습 길라잡이 프로그램 등은 대학생들 적응을 돕는 멘토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4년의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자신이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취업 후 보다 전문적인 경력 개발을 원하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간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듯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학생과 교수가 모두 함께 활기차게 Up & Up을 외치며 하루 하루 즐겁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유문숙 간호학부장

내가 걸어온 삶의 모습

난 어려서부터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보람되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도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가 너무나도 보람되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난 막연히 선생님이 되거나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결심을 하면서 자랐다.

그런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고3이 되면서는 더욱 더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고3 당시 대학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작은 오빠와 함께 둘러본 교정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아름다워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향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고, 그를 생각하며 기쁨과 기대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였다. 고3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난 진심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과, 간호의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공금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면 선생님과 간호사가 둘 다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던 것 같다.

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만큼 간호사가 되어서도 교육을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었고, 아픈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즐겁게 간호사로서 생활을 하였다. 신규간호사로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수간호사 선생님께서는 남달리 환자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나를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세워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도 하였다. 간호사로서 일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정성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마음을 다해 간호를 했던 환자들의 경과가 좋을 때 간호학을 선택한 보람을 다시한번 느끼고 간호사로서의 감사함을 누리며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은 간호사로서의 나의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큰 토대가 되었다.

나는 늘 간호학이 참으로 의로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해오곤 하였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치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그런 종류의 학문이 아니라, 환자의 긍정적인 회복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돌봄과 선을 베풀며 상처를 보듬는 너무나도 따뜻한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간호사는 가장 의롭고 보람된 직업이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 병원의 환경은 너무나도 경쟁적이고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에 놓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과 열정을 가진 간호사의 돌봄은 환자의 치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제는 그러한 간호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다.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삐죽 삐죽하며 모가 나있던 모습들이, 어느덧 간호학을 공부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 지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아픔에 대해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들을 가지고 졸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곤 한다. 나는 아주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과 넉넉함으로 환자간호를 실천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간호사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삶과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송주은 교수 / 간호대학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길

중간고사 기간을 즈음하여 나무잎은 한창 가을을 준비하며 단풍을 덧입는 가운데 학생들은 그간 배운 지식들을 재정비 하느라 기숙사와 도서관의 불빛은 한밤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 저녁 강의를 준비하며 차를 한잔 마시러 들린 휴게실 옆에는 새로 제작하여 강의실 벽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액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내려 가다가 마지막 항목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답답한 학생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나직이 반복하여 되뇌어 보았다.

[간호대학 교육목표]

10.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다.

학생들은 실습 중에 경험한 간호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병원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사들로부터 왜 간호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담당교수로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열심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목표 액자에 선명히 아로새겨져 있는 「소명의식(召命意識)」이라는 네 글자를 보니 학생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나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전해야 하는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은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 나는 간호의 소명의식을 어떻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

표준국어대사전의 힘을 빌리면 소명의식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일에 대하여 깨어 인식하는 상태인데,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은 인간의 돌봄에 대한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스스로 느끼는 길이라고 감히 생각하여 본다. 내가 간호사로 근무했던 모교병원은 주변이 공단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무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과 자주 마주하였었다. 얼음물에 담긴 잘린 손가락 봉지를 젖은 눈망울로 내밀기도 하고 병원비를 걱정하며 찡그린 표정에도 진통제를 마다하는 환자들을 경험하며 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돌봄의 미학에 충실하고자 다짐했었다. 간혹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연수보고를 발표할 때 1인실로 구성된 병원들의 내부전경을 보여주거나 간호사가 소수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면

한쪽에서는 부러움의 탄성이 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수도 소수라는 것을 학생들이 꼭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기쁨에 얼룩진 잘린 손가락을 들고는 찾아갈 수 없는 병원이었음에도 모른다.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학생들에게 간호사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사유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아울러 돌봄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책무가 나에게도 있음을 절감하며 「간호의 소명의식」에 깨어 학생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현재진행형으로서의 내가 간호사로서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고백해본다. 한밤 학생들의 지적 열정으로 교정의 어둠을 밝혀지는 불빛이 앞으로 가치있게 빛나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박형란 교수 / 간호대학

2012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2012년 5월 정규 3학년 과정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교환학생프로그램 선발이 있었다. 간호학에 열정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선발에 도전하였고, 성실히 준비한 많은 학생들 가운데 8명이 선발되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는 김나연, 박소연, 박주희, 박지영, 박지원, 조유진, 김진희, 김유정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국 LA 소재의 UCLA medical center를 포함한 총 4곳의 병원과 2곳의 너싱홈(Regency Park Oak Knoll, City of Hope)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학교와 의료원의 지원으로 특별하고 귀한 경험을 하게 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자.

우리는 총 6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병원 두 곳은 UCLA병원과 CHLA(Children's Hospital LA)이다. UCLA병원은 미국의 5000여 개 병원 중 상위 5번째인 곳으로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진들의 의료수준이 매우 뛰어나 보였다. UCLA병원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Magnet Hospital 인증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병원 전체 간호사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전역 병원 중 상위 6%안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간호사들의 자부심이 높아보였다. 또 UCLA병원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이 Pyxis medication이라는 시스템이었는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간호사가 ID카드와 지문을 찍은 후 담당하는 환자 리스트에서 해당 시간 투여해야 할 약물을 클릭하면 약물 칸에서 해당되는 약만 오픈이 돼서 투약사고를 막을 수 있다.

CHLA(Children's Hospital LA)는 아동병원으로 이 병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the sash」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광 띠 모양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두르는 띠인데,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약을 준비하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띠를 두르고, 그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 간호사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이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병원에서는 이것을 2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약사고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간호사는 약과 환자 사이에서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CHLA병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다. 그 중간 과정에서의 다른 의료진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만큼 간호사의 책임이 크며 의사, 약사 그리고 청소부까지도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뜻한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내에서는 더욱 더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나연, 박주희〉



이번 연수를 통해 먼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미국 병원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존중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동이 1인실이고 2인실의 경우도 Y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서류 작업이 많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각 병원에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를 위한 국가별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각 병실마다 벽 한면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창문과 동물 치료실 등과 같이 환자들에게 자연치유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간호사가 일할 때 편한 신발을 신고 일하는 모습,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 많은 환자수가 적은 것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간호사들은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업무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더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부러웠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개인적이고, 간호사의 실수에 칼같이 대응하는 것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몇몇 병원을 둘러본 결과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았지만 한국도 그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의 선진의료로 볼 수 있으면서도 한국도 의료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박지영, 조유진〉

이번 연수의 하루 일정은 아침에 영어수업을 듣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영어 수업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쳐야하는 ILETS 수업의 기본적인 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CPR과 응급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수료장도 받았는데, 2학년 겨울 방학 때 CPR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과 매우 유사해서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주말에는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할리우드 등 LA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미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몸소 느껴보고 쇼핑도 하며 영어실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Melting Pot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 아쉬웠지만 대학병원, 요양원 등 전반적인 미국의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미국의 간호사의 역할과 병원시스템, 의료체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박소연, 박지원〉



LA 소재의 Medical center와 너싱홈을 견학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차이와 간호사의 직무와 직무환경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진 의료환경의 경험을 통해 한국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고 훗날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를 실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인간호학 실습-6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올해부터 「너싱홈 예원」이라는 곳에서 노인 간호학 실습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전문가적 간호사의 자질을 배우기 위해 6일 동안의 실습이 이루어졌다. 「너싱홈 예원」은 간호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이번 실습을 통해 임상 이외의 곳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간호사는 주로 기본간호, 투약, 감염관리, 흡인, 배뇨/배변관리, 상처간호, 영양, 안전관리를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요양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동안 주로 병원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병원 이외의 곳에 무관심했던 저희들에게 향후 진료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실습이었다.

총 38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며 한 층에는 경증의 어르신들이, 또 다른 층에는 중증도가 높거나 외상이신 어르신들이 지내고 계셨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서로 정을 느끼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치매,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어르신이 가진 기저질환과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증상과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들긴 했지만, 처음엔 인지능력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욕설과 함께 공격적 행동을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할 지 우왕좌왕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눈높이를 맞추어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뼉을 해드리다 보니 어느덧 의미 없는 말일지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간호학생으로서 너싱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손녀딸같이 덕담을 해주심에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실습이었다.

너싱홈 내부는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다. 커다란 창문으로 밖이 환히 보이고, 채광이 잘 되고 있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시며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시는 듯 보였다. 요양원 시설 곳곳에서는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눈이 편 시설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탁이다. 의자에는 팔걸이가 설치되어 편안히 기대실 수 있으며, 바퀴가 달려있지 않아 의자가 앞뒤로 미끄러져 낙상할 염려도 없다. 대신 의자의 앉는 부분이 빙글 돌아갈 수 있어 의자에 앉고 일어서기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또한 침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낙상을



▲ 맛있는 점심시간, 골고루 드세요.



▲ 식탁과 의자



▲ 개인침실(좌변기, 서랍장, 침대)



▲ 어르신들, 흔들어 주세요~



▲ 웃음치료시간



▲ 색칠공부 시간

방지할 수 있고, 침대 바로 옆에 의자 형태의 간이 변기가 놓여 있어 자고 일어났을 때나 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 서랍 위에 놓인 물병에는 빨대가 꽂혀 있어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에게 흡인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께서 휠체어나 위커를 이용해 움직이기 편하도록 함과 동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턱이 제거되어 있으며, 일어나 걸지는 못하더라도 앉아서 이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께는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드려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화장실에는 벽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잡고 앉거나 일어날 수 있고, 휠체어를 탄 채로 드나들 수 있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들이 곳곳에 꾸며져 있고, 화분들과 어항이 놓여 있는 등의 인테리어도 돋보였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자신의 집처럼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방 분위기가 좋았다. 이번 너싱홈 실습은 대상자의 건강 뿐 아니라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너싱홈에서는 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능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요일 별로 음악치료, 웃음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예배가 진행되었다. 웃음치료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가치 있다」라는 말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엮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서 상태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운동치료시간에는 기력이 없으셔서 평소 소파에만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율동에 맞춰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근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프

로그래는 어르신들의 남은 기능을 유지, 증진하고, 삶의 마지막을 조금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 간호학 수업을 통해 노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실습을 하게 되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특히, 간호사로서 이러한 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 입소하실 때는 잘 걸지 못했던 분이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조금씩 걸기도 하고 식사도 잘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들의 너싱홈은 노인들의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기에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수정 · 이혜림 · 장한아 · 조지연 · 최수미 학생 / 간호대학 4학년

간호사, 연구강사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생물이라는 과목이 무척이나 좋았고 자연스레 동일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으나 그 당시의 내 짧은 소견으로는 그 분야에서 막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아주대학교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과목에 대한 동경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라는 전문직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특히 간호학과 2학년 때 생리학 과목을 배우면서 간호사로 취직하고 나서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졸업을 하고 아주대학교병원 외과계 집중치료실(ICUB)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왜 힘들게 ICU에서 근무하게 되었냐고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순환생리가 좋았고 심혈관계 건강문제 간호가 재미있었던 나에게서 외과계 집중치료실로 배치된 것이 행운이었다. 그곳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 간호학과와 전공기초교과목인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에 대해 간호학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여 임상간호학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막연히 대학원에 진학해서 생리학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기초간호자연과학은 새로운 목표로 다가왔고, 이를 위해 아주대 의대 생리학 교실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Part time 석사과정으로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세포단위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과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 및 조직 단위에서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2006년 2학기에 석박통합과정으로 다시 출발선에 섰다. 밤낮 없이 실험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하루를 일년같이 일년을 하루같이 6년 반을 보내며 쓴맛, 고난, 역경, 좌절을 맛보았다. 학부 때나 현장 근무를 할 때는 나의 일에만 충실하면 얼마든

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지만 인생의 더 큰 목표를 위해 나를 갈고 닦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날이 참 많았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지도 교수님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으며 쉽게 얻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시간을 보내고나니 논문과 함께 박사학위가 내 눈 앞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대학 연구강사로 일을 하며 학생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고 있다.

간호사로서의 임상경험과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기초간호자연과학으로 통합하는 것은 본인 앞에 생긴 또 다른 출발선이다. 어느 분야이든 공부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고 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다 보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은지 연구강사 / 1회 졸업생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는 간호사의 길

2007년 졸업을 앞두고의 마음은 드넓은 가을 들녘처럼 결실을 맺는 단계라는 생각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그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4년 간의 간호학생 시절의 배움의 과정은 간호사로서의 긴 사슬고리 같은 길의 첫 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졸업 후에는 잘 만들어진 그 첫 고리에 또 다른 고리를 잘 엮어 나아가는 것.

졸업 후 나는 그 첫 고리로 아주대학교병원 3층 외과계 집중치료실의 근무경험을 거쳐 현재는 보건소라는 현장에 나와 있다. 처음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신분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할 때 느낌은 막 날개짓을 해 세상에 나온 어린 나비와 같은 기분이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마주하고 돌봤던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게 하는 상황과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과 요구도를 가진 대상자들.

- 온 들녘에 내리 쬐는 햇살과 같은 간호사의 역할

병원에서는 아프고 다친 특정 대상자들을 회복시키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간호사로서 일을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대상자가 아닌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과 인식을 높여주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취약계층 무료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대상자를 만나 병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기운을 증진시켜준다는 점이 지역사회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하고 이 일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현장에서

요즘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으로 한창 바쁜 때이다. 가평에 있는 연수원에서 전국에 있는 독감 접종 담당들과 질병관리본부 관련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서로 질의 응답을 하며 토론을 거쳐 독감접종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나의 움직임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여러분은 간호사로서의 첫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간호사로서 여러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마주하며 하나하나의 고리를 충실히 만들어 엮어가다보면 하나의 큰 원을 만들고 있는 빛나는 간호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희은 간호사 / 6회 졸업생

내 인생의 최고를 아주대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만디라고 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일상과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날, 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며 너무나도 긴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모국인 캄보디아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으나 이 곳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많이 놀랐답니다. 「남자가 무슨 간호사를 해?」 그때만 해도 전 약간 부끄러웠지만 캄보디아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추운 날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님께서선 이보다 더 추운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음식, 추운 날씨, 낯선 문화, 다른 생활 양식 등, 제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든 것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친해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제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보살핌을 주셔서 한국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 강의를 처음 듣던 날,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의 최신 학습 제도과 물품에 많이 놀랐습니다. 학습 방식이 저희 모국과는 달랐지만 제가

받은 수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명문 대학 중의 하나인 아주대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간호 교육을 받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최고를 맞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간호 업무를 위한 실제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제도와 행정 정책 전반에 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제 모국의 간호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수업으로 인해 의료 발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장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활약을 해야 하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세상이 넓다라는 것과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캄보디아의 미래 선구자로서 지금 여기서 선진화된 교육을 잘 받고 싶습니다.



Manndy's essay / 해외 교환학생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 준 이탈리아 워크캠프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단순한 여행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해외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그 곳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나는 워크캠프를 선택했다. 워크캠프는 건설, 지역축제참가, 복지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의 워크캠프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하면 참가할 수 있다. 나는 전공이 간호인만큼 복지에 관한 워크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추후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작은 마을인 Gangliole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날, 외국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는 이탈리아에 혼자 가는 것에 대해 즐거움 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소매치기를 만나지는 않을까, 심지어 비행기 환승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들었다. 이탈리아의 숙소에 도착하니 내가 한국에서 하던 걱정이 싹 사라졌다. 이탈리아도 사람 사는 곳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괜히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만 했었다. 용기를 내어 캠프 참가 전 5일 동안은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혼자 여행했다.

캠프 첫 날은 조원들이 모두 모여 캠프 2주간 어떻게 지낼지를 의논했다. 복지시설에는 몸이 불편해서 대부분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긴 고령자가 많았다. 우울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몇몇 분들은 공격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를 하였고, 노래방 기기를 틀어서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헤드렸다. 점심에는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드렸고, 오후에는 노인 분들과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휠체어에 앉아서 장난감용 볼링으로 볼링을 치기도 하였다. 주말이나 저녁 휴식시간에는 근교 바닷가 산책이나 마을 축제에도 참가하기도 했다. 런던 올림픽 기간이어서 함께 응원도 했다.

워크캠프에 참가하면서 낯선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낀

다는 것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캠프조원들의 휴대폰이 한국에서 온 나만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 요양시설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요양시설에서 봉사를 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다. 가끔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것을 모르고 손 마사지를 계속 하거나, 배부른데 계속 옆에서 음식을 먹여드려서 화를 내기도 하였다.

워크캠프에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이 온다. 그 중에서 40살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워크캠프에 참가해 이번 캠프가 32번째 워크캠프 참가하는 조원이 있었다.

세르비아에서 온 동갑내기 친구는 꿈에서도 이탈리아어로 말 한다고 할 정도로 이탈리아어를 잘 구사했고 영어 또한 능숙했다. 친구들 중에는 8개국어가 능통한 언어천재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항상 도전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막상 도전한 후에는 깨닫는 바가 많다. 대학생,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보내는 만큼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배워야한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배워나갈 것이다.

김나영 학생 / 간호대학 2학년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 년 정도 외국에서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며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느껴보고 싶었다. 휴학으로 시간은 벌었지만 장기로 떠날 돈이 없는 게 문제였고 청년들의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1년간 관광과 체류비를 벌기 위한 현지 취업을 허가해주는 워킹홀리데이는 그런 나에게 딱 맞는 제도였다. 우리나라는 호주, 프랑스, 홍콩 등 1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 나는 그 중 일본을 골랐다. 영어보다 일본어에 더 자신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해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3월말, 한국인은 승무원과 나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향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은 아니었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낯선 땅에서 나는 정말 혼자였고, 살 집을 찾는 것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 게다가 일본은 외국인에게 친절할 나라가 아니었다. 은행에서는 다섯 번이나 계좌 신설을 거부했고 집을 빌릴 때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 「사례금」에 보증인까지 요구했다. 한 시간이면 끝날 일들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건 기본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은 있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또한 금방 깨닫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도 통장도 휴대폰도 생겼고 카페와 번역 아르바이트도 구했다. 집세와 교통비는 정말 비쌌지만 다른 물가는 비슷했고 그 이상으로 임금이 높았기에 필요한 비용은 쉽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다만 높은 시급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학교로 돌아와 기본 간호 실습을 하는 지금은 그런 꼼꼼함이 간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몸에 배려던 참에 그만뒀던 게 아쉬울 뿐이다.

나는 먹다 죽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은 오사카에 살

고 있었고 근처에는 불교 유적과 야생 사슴이 가득한 나라와 게이샤가 있는 교토, 대지진을 딛고 일어난 고베가 있었다. 취업이나 어학연수가 아닌 관광이 목적이었던 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서 향토음식을 먹었다.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멀리 가려고 노력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북쪽으로 올라갈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남쪽으로는 대부분의 현을 밟아본 것 같다.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면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나는 간호학생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더 성장하고 싶었고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 간소하지만 정성이 깃든 삶, 전통에 대한 적절한 수용,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 스스로 뭔가 이루어냈을 때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일본어 실력을 얻었다. 끊임없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아소의 활화산, 사막처럼 펼쳐진 돗토리외의 넓은 사구, 잘 꾸며진 온천마

을 사진이 아닌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고도로 발달된 일본 사회를 보며 10년 뒤 나와 우리에게 다칠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쁜 대학 생활이라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박하린 학생 / 간호대학 2학년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린 곳, 몽골

3년간 출발지연 등으로 쉽지 않은 몽골 여행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제일 먼저 나를 반겨준 초원은 태어나서 가장 심한 말미를 선물했다. 긴 12박 13일 간의 일정은 뒤돌아 보니, 그래도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든다.

몽골에서 맞이한 첫날은 GCS 10주년 행사장에서 공연을 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긴장한 탓에 머리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만 같았다. 내가 가장 걱정한 것은 태권무였다. 함께 참여한 다른 학교 공연팀이 격과를 우리 바로 앞 순서에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우리 격과 순서가 되어 친구와 마주 보았을 때 잘하려는 서로의 그 결연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먹격과 한 번을 실패하였지만 연습보다 훨씬 훌륭한 무대였던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감자 밭 잡초뽑기를 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보통일이 아니었다. 이들에 걸려서 작업을 하는 동안 허리와 손도 많이 아팠지만 음악도 듣고 팀원들과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잡초뽑기가 쉽다고 느낄만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비타민 나무 구멍파기다. 처음 해보는 삼질이 재미있었지만 힘든 작업이었다. 다른 학교 남학생이 5개를 파고 드러 누웠다는 말에 웬지 모를 경쟁심이 생겨 하루 종일 곳곳하게 5개를 파다. 아직도 삼에 돌이 부딪히는 『땡땡땡』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 하다.

주제 조사 시간에 내가 속한 조는 몽골인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많은 몽골인과 직접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시장도 구경할 기회가 있어 몽골 전통의상을 입어 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벽화그리기 봉사도 했다. 과연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미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었다. 식사까지 미뤄가며 그림에 열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몽골의 하늘은 우리에게 예쁜 무지개도 선물해주고 잠시 쉴 시간을 주기 위해 단비도 내려주었다. 나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서 마무리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인지 넓은 건물의 벽화를 볼 때마다 자꾸 내가 한 부분에만 눈길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벽화처럼 참가자 22명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날에는 대대로 기수집안인 5남매가 사는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나의 몽골 이름인 「솨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 더욱 특별히 마음이 갔다. 식사도 입에 잘 맞았고 부모님과 좋은 분들이셨다. 이 가족들과 지내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마유주였다. 거절이 예의가 아니라 하여 한국에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웃으며 원샷을 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를 때 우리에게 선물로 술 한 병씩을 안겨주셨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왔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몽골에 가서는 단 한 순간도 내가 없는 삶, 오직 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다짐했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리더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시간을 지내고 돌아온 것 같아 속상하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것에 크나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이 약함을 함께 덮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강한아 · 김셋별 학생 / 간호대학 3학년

나는 간호대 남자다!

어느덧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구체적으로 나의 대학생활을 돌아켜 본적은 없었다. 돌아보면 추억과 아쉬움이라는 단어만 생각날 뿐이다. 남들 보다 1년 늦게 입학 한 대학, 보통 남자들이 다르고 여자들이 많은 간호대학의 입학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인지 그 동안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간호대 갔어?』이다. 그 당시 질문을 받으면 한동안 생각을 하고 답을 했다. 『음, 남자 간호사가 유망한 직업이라서요』 이 대답이면 모두가 수긍을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06학번 선배가 나에게 『간호대는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하였다. 대학생활의 기대감과 함께 고등학교 3년 내내 남학생들만 있던 학교에서 생활했었는데, 여자가 많은 과에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 속이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1학년 43명 중에 나를 포함, 남자는 2명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대에서 느낀 것은 「여학생들, 참 열심히 공부한다」였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고 매번 생각한다. 또 교수, 조교, 학생들 사이가 가족 같고 따뜻한 분위기다. 그 이유는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나 학생들의 사소한 의견까지 수렴해 주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고심하시는 교수님들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조교선생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남학생들의 수가 적다 보니 서로서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동아리도 같이 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많아진다. 남자선배에게 학교생활의 팁이나 고충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친목도모 겸 간호대 남자학우 모임이 만들어졌다.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같다.

나도 대한민국의 남자에게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군대를 갔다. 간호대 남자들은 대부분 의무병이란 보직으로 군생활을 한다. 간호대 학생으

로서 의무병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주사 놓는 법, 약·환자 관리 등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리 환자를 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군대에서 배운 지식이 복학하고 나서 수업과 실습 때 도움이 되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전역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전역을 하고나니 복학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복학이 신입생 시절 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다. 복학 첫 수업,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들은 나를 어려워했고, 나 또한 후배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서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실습도 같이 하며 축제에 나가서 춤도 추며 친하게 지내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학하는 남자후배들에게 항상 말한다. 조금해 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거라고, 시간이 약이란 옛 속담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3학년 2학기, 대학생활의 반 이상이 지났고 1년이란 대학 생활이 남았다. 한 때 동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웠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후배들이 있기에 위로가 된다. 이제는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같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진다. 나와 함께 하는 그들과 남은 1년 간의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

남학생으로 간호대에 다니면 좋지 않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좋다고 하지만 남자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생으로서 좋다고. 간호대학·간호사란 직업에서 남자는 아직 소수이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제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호대 남자에게 「남자로서」란 전제를 빼고 「간호대 학생 어때요? 좋죠?」라는 말을 듣고 싶다.

강철규 학생 / 간호대학 2학년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14대학생회 「기대」입니다

입기를 시작하고 추운겨울에 4학년 선배님들이 국가고시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을 나갔던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시 4학년 선배들이 국가고시를 10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되었다. 1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2월말에는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다녀왔다. 14대 학생회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자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즐겁게 선배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3월 초에는 신입생환영회와 개강총회를 하여 신입생들과 선배님들이 함께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공식적으로 14대 학생회의 출범식도 함께 가졌다. 학생회의 새로운 사업인 「다주이소」가 3월에 함께 있었는데, 이 사업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셔서 학생회로서는 너무도 보람찬 사업이었다. 3월말에는 학우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간호대학 총 MT를 다녀왔다. 고기도 굵고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4월에는 늦게까지 중간고사 공부를 하느라 지쳐있는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자 간식사업을 진행하였다. 종래 간식사업과는 차별화를 두어 응원쪽지를 담아 포장을 하여 간호대학 모든 학우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작은 간식에도 기뻐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니 기뻐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5월에는 아주대학교에서 가장 큰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다. 간호대학에서도 부스를 설치하여 2학년 학생들이 본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주점을 설치하여 간호대학 학우들, 졸업하신 선배님들,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우들이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방학 중에는 2학기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간호대학 축제-전야제, 학술제, 간호인의 밤을 어떻게 진행할까 구상하였다. 많은 아이디어들 가

운데 이번 학술제에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다른지를 주제로 연구하였다. 연구주제의 소개 및 결과발표와 함께 웃음치료강사 선생님을 초빙하여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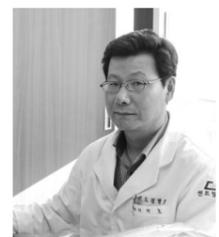


9월에는 2학기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인의 밤에는 [The Orange Night]라는 주제로 드레스코드를 주황색으로 맞추어 학우들이 각자의 패션 센스를 공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인의 밤 행사에는 장기자랑도 함께 하였는데 간호대학 학우들의 노래솜씨와 춤실력을 뽐내는 자리였고,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주어 더욱 풍성한 간호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어느새 9월이 다 지나가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간호대 14대 학생회와 함께 보내고 있는 2012년은 어떠한가? 우리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간호대학 학우들이 올해가 다 지나고 난 후 2012년을 되돌아 봤을 때 「아, 14대 학생회 「기대」와 함께 한 1년 정말 알찼다!」 라고 느끼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의 2012년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14대 학생회 「기대」가 되겠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제14대 학생회

신뢰, 봉사, 건강을 최우선하는 동탄 신도시 센트럴병원



▲ 이연호 병원장

동탄 신도시 센트럴 파크 맞은 편에 위치한 센트럴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 병원으로써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밀검사와 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개원하였다.

2개 병동의 51병상과 외래진료실, 수술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교통사고, 산업 재해, 후유장애 등 급성기 환자의 입원료가 가능하고 수술 후 회복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계획 및 주시관찰로 입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주기적으로 1:1 진료상담을 치료종결시 까지 유지하여 후유장애를 체크하는 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일반검진, 학생검진, 직장검진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료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병원을 통한 진료의뢰 및 회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범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공헌활동,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장애인등에 대해 지역자치단체 및 장애인협회 등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봉사활동, 바자회, 기부금 등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을 구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센트럴병원의 최고 의료진과 30여명의 임직원은 안락한 병원 환경과 내 가족처럼 치료하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신뢰하는 중심의 병원, 센트럴병원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전화 : 8003-9988 (주소 : 경기 화성시 반송동 41-5)

이세민 계장 / 진료협력센터

AMC NEWS

이주 행복한 걷기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지난 10월 19일 별관 지하1층 대강당과 화성시 용건릉에서 암환우와 가족을 위한 「행복! 걸을수록 커지는 아주 행복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아주 행복한 걷기대회는 걷기를 암 치료와 접목하여 환자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찾게 할 목적에서 기획한 것으로, 암을 극복한 사람,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지역사회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걸으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에는 3백 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이 참가하였으며,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의 「갱년기 여성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몸 풀기 운동을 실시한 후 화성시 용건릉 주변을 걷는 행사로 진행됐다.

걷기대회는 용건릉 주변의 2.42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이완요법 교육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즐겁게 걷기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경기지역암센터, 제1회 「2권역 심포지엄」성황리에 개최해

경기지역암센터는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완화의료전문기관 2권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별 완화의료 전문기관 협의체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권역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암환자에게 보다 향상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권역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속하는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를 비롯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수원기독의원, 안양샘병원, 전진상의원 등이 참석해 완화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소장 전미선) △고대구로병원 호스피스후원회 및 완화의료센터활동(고대구로

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강사 이수희)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의 팀접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김명옥)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완화의료담당 고진희) △호스피스와 전인치유에 대한 이해(수원기독의원 원목 김환근) △완화의료의 이해와 치료(안양샘병원 완화의료병동장 곽정임) 강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한상욱 제1진료부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완화의료의 필요성과 바른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영, 이기영 교수팀, 최우수논문상 수상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치료클리닉의 임신영, 이기영 교수팀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Translational Bioinformatics Conference 2012」에서 「Best Paper Award」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아주의대 재활의학과(임신영), 의료정보학과(윤덕용, 이기영, 박래용), 성형외과(박명철, 이일재), 병리학과(김장희), 의과학연구소(이명애), 영상의학과(곽규성), 외과(소의영, 이정훈) 등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Integrative Analysis of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from Gene Expression to Clinical Significance」로 저명 SCI 논문인 JAMI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또는 BMC Systems Biology에 출간될 예정이다.

김은영 교수, 젊은 신경과학자상 수상

의과학연구소 김은영 교수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Carl Zeiss Young Neuroscientist Award」를 수상했다.

Carl Zeiss Young Neuroscientist Award는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그 간의 연구 내용을 심사하여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은영 교수는 생체시계의 분자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며 훌륭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민석 교수, 논문인용부문 한길연구상 수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가 지난 10월 19일 부여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해부학회에서 논문인용부문 한길연구상을 수상했다.

정민석 교수는 사람 몸의 연속절단면영상을 이용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2012년에 발표한 3편의 SCI, SCIE 논문에서 대한해부학회 학술지인 Anatomy & Cell Biololgy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이번에 수여된 논문인용부문 한길연구상은 Anatomy & Cell Biololgy의 Impact Factor를 높인(1편마다 0.025)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인용된 논문 별책은 anatomy.co.kr 에서 볼 수 있다.

김철호 교수, 동아 우수연제상 수상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 교수가 지난 10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동아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동아 우수연제상은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 중 자유연제 발표 내용이 탁월한 주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에 수상한 구연 제목은 「성대마비와 흡인 치료를 위해 피브리린과 하이알루론산 산을 지지체와 연골세포를 이용한 조직 공학적 성대주입물 제작(Transplantation of Autologous Chondrocytes Seeded on a Fibrin/Hyaluronic acid Composite gel into Larynx for Prevention of AspirationDysphonia: Preliminary animal study)」이다.

이정근 교수, 우수발표연제상 수상

치과학교실 이정근 교수가 지난 달 21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 골다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BRONJ의 병기에 따른 치료」라는 주제로 우수발표연제상을 수상했다.

골다공증학회는 골다공증을 주제로 하는 내분비내과를 비롯해 치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5개 유관과가 주축이 돼 골다공증학에 대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날 열린 골다공증학회 평의원회 및 총회 결정에 따라 2013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골다공증연맹(Asian Federation of Osteoporosis Societies, AFOS)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부회장으로 임명돼 앞으로 1년 간 회의 준비를 위해 유관과들과 함께 치과 대표로 참여하게 됐다.

황동훈 교수, 한국 뇌신경과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의과학연구소 황동훈 교수가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여된 우수 포스터상은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그 간의 연구내용을 심사하여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황동훈 교수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척수 손상 치료 및 기전 연구를 수행하며 훌륭한 연구 업적을 이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희석 병원장, 대한부인중양학회장에 선임



아주대학교병원 유희석 병원장이 지난 11월 2일 개최된 제28차 대한부인중양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희석 병원장은 현재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회장직을 수행 중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두 학회의 총무이사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장석준 교수가 임명되었다.

박래용 교수팀, 「2012 대학원 연구 FAIR 학술행사」 우수 연구자로 선정

의료정보학과 박래용 교수팀 소속 2명(박만영 연구강사, 윤덕용 박사과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2 대학원 연구 FAIR 학술행사」에서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는 아주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서 주최한 행사로 교내 전체 연구교수, 박사 후 과정,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연구자 후보를 추천 받았으며, 이중 총 14명(연구교수 2명, 박사 후 과정 2명, 박사과정 10명)을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어 총장상과 상금을 받았다. 특히 의료정보학과 박래용 교수팀은 유일하게 한 연구실에서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의학과 및 의생명과학과에서는 의생명과학과(이지훈/ Muhammad Imran), 의학과(김광수/ 박만영/ 윤덕용) 총 5명이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지역암센터 방문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청 관계자 일행 15명이 경기도 암사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료현장방문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6층 경기지역암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의료서비스 및 복지시설 현장 근무자 간담회와 시설견학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기지역암센터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한 고인정 의원, 김용연 경기도 보건정책국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일행은 경기지역암센터 현황 및 환우의 사례발표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소의영 의료원장은 방문단 일행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아주대학교병원의 암 환자 쉼터인 아주푸른공간이 암 환우의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세계미숙아의 날 기념, 이른둥이 부모 특강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세계 미숙아의 날(11월17일)」을 즈음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1회 이른둥이 부모특강을 개최했다.

10월25일 오후 4시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아주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퇴원한 신생아 부모들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둥이 건강정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부모특강에서 △영양관리: 이유식 (소아청소년과 장주영 교수) △영유아 지원사업 안내 (사회사업팀 서소라 사회사업사)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이장훈 교수) △성장 발달 (소아청소년과 김유진 교수)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시간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미 출생한 미숙아들이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키우자는 취지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본 행사는 오는 11월11일 오후 1시부터 삼성역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도서기증

■ 아주대학교 안재환 총장이 생명공학과 최상돈 교수가 펴낸 「유전자 백과사전」 전질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최상돈 교수가 주도하고 전 세계 과학자 800여 명이 참여한 「신호전달 분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Signaling Molecules)」은 2,030페이지 분량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가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외 도서 6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경기경찰청 제120 전투경찰대, 헌혈증 기부해



경기경찰청 제120 전투경찰대(대장 겸감 김형기)에서 지난 10월 9일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 헌혈증을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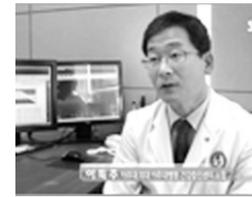
이번에 기증한 헌혈증은 장중혁 수경 등 31명이 헌혈하여 마련한 것으로, 경기경찰청 제120 전투경찰대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어려운 환자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기증받은 헌혈증을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 치료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루디아어린이선교회, 소아환아 위해 도서기증

루디아어린이선교회가 최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는 소아 환자를 위해 5종의 도서 총 84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 도서는 외래진료실 및 병동에 비치하여 환아들이 볼 수 있게 된다. 루디아어린이선교회는 1976년 설립된 어린이 전문사역 선교단체로, 앞으로 도 아주대병원 환아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방송: SBS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2. 9. 25(화)
—출연: 가정의학과학교실 이득주 교수
가정의학과학교실 김광민 교수
—내용: 원인 모를 만성피로 · 무력감, 그냥 뒀다가...



—방송: YTN 사이언스 뉴스
—일시: 2012.9. 26(수)
—출연: 의과학연구소 이광 교수
—내용: 의료용 나노입자 인체 독성 유발



—방송: 연합뉴스TV 뉴스Y
—일시: 2012.9. 30(일)
—출연: 가정의학과학교실 김범택 교수
—내용: 추석엔 다이어트 삼차림으로



—방송: CBS 라디오 웰빙 다이어리
—일시: 2012.10. 9(화)
—출연: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남동호 교수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신유섭 교수
—내용: 알레르기 건강강좌



—방송: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시: 2012.10.12(금)
—출연: 신장내과학교실 김홍수 교수
신장내과학교실 박인휘 교수
—내용: 중년 건강 좌우하는 몸 속 정수기 신장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2. 10. 16(화)
—출연: 정형외과학교실 이두형 교수
재활의학교실 윤승현 교수
—내용: 스포츠 손상,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



〈질병의 '신호' 찾아 건강 100세 책임진다〉
—조선일보 | 2012. 9. 25(화)
—건강진진센터 이득주 소장



〈나잇살 빼려다가...성장호르몬 맞다가 관절통 우려〉
—조선일보 | 2012. 10. 3(수)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윤석 교수



—방송: SBS 100세 건강스페셜
—일시: 2012. 10. 22(월)
—출연: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
—내용: 관절의 암 - 류마티스관절염



—방송: OBS <생방송OBS>
—일시: 2012. 10. 22(월)
—출연: 경기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산부인과학교실 김미란 교수
—내용: [줌인합현장] 암환우와 함께한 행복한 동행



—방송: SBS 라디오 건강칼럼
—일시: 2012. 10.2 2(월) ~ 28(일)
—출연: 산부인과학교실 김미란 교수
—내용: 산부인과 질환



—방송: KBS 뉴스
—일시: 2012. 10. 24(수)
—출연: 정신건강의학교실 신윤미 교수
—내용: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 심각... 인터넷의 2배



—방송: YTN 사이언스 의학칼럼
—일시: 2012. 10. 29(월)
—출연: 응급의학교실 최상천 교수
—내용: 가정 내 어린이 안전 사고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2. 11. 1(목)
—출연: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교수
—내용: 당뇨병, 예방 · 꼼꼼한 관리가 중요



〈베트남 前당서시장 치료받은 韓의료진〉
—한국경제 | 2012. 10. 15(월)
—신경외과학교실 조기홍 교수
신경외과학교실 김상현 교수



〈가스중독 사고 年2800여건... 치료기는 전국에 9대뿐〉
—조선일보 | 2012. 10. 16(화)
—응급의학교실 김기운 교수

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신승수 교수 100만 원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가 지난 10월15일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신승수 교수는 아주의대 1회 졸업생으로 현재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직책을 수행 중이며, 2003년에도 의료원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 간호부 3,080,400원

간호부는 지난 10월4일 「천사(1004)day」간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사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의 판매수익금 3,080,400원을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원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다. 간호부에서는 매년 10월 4일을 「천사(1004)day」로 정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기금

● 이기명 교수 1000만 원

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가 지난 10월22일 아주대학교의료원 「중증외상센터」건물신축 및 지원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약정하였다. 이기명 교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설립 추진 중인 중증외상센터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관으로 조속히 설립되어 많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기부동기를 밝혔고, 『불철주야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애쓰시는 우리 병원의 이국종 교수, 정정원 교수, 김지영 간호사 이하 여러 분께도 마음 깊은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건축기금

● 송충숙 수간호사 100만 원

혈액투석실 송충숙 수간호사가 지난 9월 23일 간호대학 건축기금으로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송충숙 수간호사는 『2014년 간호대학건물 신축 목표를 위해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부 동기를 전했고, 2003년과 2006년에도 각각 50만 원씩 의료원발전기금을 후원한 바 있다.

의과대학 발전기금

● 의학부 발전 기금

－ 한은구 님 50만 원

의과대학 학부모 한은구 님이 지난 10월12일 아주의대생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의대 교수 장학기금

－ 한승환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100만 원

정형외과학교실 한승환교수는 지난 10월19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 원을 의대 교수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다.

－ 의대 교수 장학기금은 2006년부터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작한 장학기금으로 현재는 약 150여 명의 교수님들이 후원에 참여하여 520여만 원의 장학금이 매월 적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학교실 박셋별 교수와 약리학교실 주일로 교수는 지금까지 약 2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후원하였고, 1000만 원 이상 후원한 교수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제자사랑 기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달의 분납 후원 교직원

강 엽, 강희영, 국경훈, 권명희, 김경민, 김광민, 김기운, 김대중, 김미란, 김범택, 김병근, 김선일, 김성수, 김세중, 김영배, 김영수, 김원기, 김옥환, 김유찬, 김은영, 김장희, 김재근, 김철호, 김행수, 김현아, 김현준, 김혜진, 김홍수, 나은우, 남동호, 노재성, 문봉기, 문소영, 민경복, 민병현, 민영기, 박경주, 박관식, 박기현, 박동하, 박래웅, 박명철, 박문성, 박셋별, 박 선, 박일중, 박재범, 박주현, 박태준, 박해심, 박헌이, 배기수, 배재익, 백은주, 서창희, 서해영, 선주성, 소의영, 손성향, 송지훈, 신승수, 신윤미, 신호준, 안영실, 안영환, 안재홍, 안현수, 양정인, 양홍석, 예영민, 오영택, 왕희정, 우현구, 원제환, 유희석, 윤계순, 윤명호, 윤승현, 이경중, 이관우, 이광, 이규성, 이기범, 이명애, 이수환, 이숙영, 이순영, 이영돈, 이영주, 이위교
< 이후 가나다 순 후원자 명단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

● 외부 후원

작은 촛불이라는 뜻의 「칸텔리노합창단」이 10월15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한 위문 음악회를 열었다.

전문 합창곡 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친숙한 동요 등 다양한 노래들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울려 내어, 음악회에 참석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이번 위문 공연행사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진료비 후원 협약식도 가졌는데, 향후에도 후원 음악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환자들의 진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사랑·나눔 비전의 「칸텔리노합창단」은 지난 봄에도 서울에서 열었던 후원 음악회 수익금을 아주대병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인 9세 남자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한 바 있다.

● 교직원 후원

(소속별 가나다 이름순)

- 10층 이식: 북미숙, 홍미라
- 11층 동: 강미순, 고 은, 김민경, 김민화, 김주리, 김현주, 박규민, 박혜영, 우혜진, 이인선, 이주민, 최순자
- 11층 서: 강은경, 강인애, 권현순, 김경미, 김영선, 김하영, 송지연, 엄혜영, 유은하, 이명희, 이민정, 이세은, 조진영, 차수연, 최우림, 허기옥, 홍근숙
- 12층 동: 문난희, 유나현, 이평애, 임신정
- 12층 서: 고정미, 김현경, 박인숙, 성화선, 윤혜경, 이연주, 임지영
- 13층 동: 강미선, 김보경, 김영숙, 류정숙, 박현주, 서미혜, 오은경, 윤지원, 이고운, 이인기, 홍선영
- 13층 서: 김미정, 김혜숙, 김희정, 박삼례, 오명순, 이현희, 이희정
- 가정간호센터: 김미영, 송종례, 이영아
- 가정의학과: 김세일
- 가정의학과교실: 김광민, 김범택, 박수정, 주남석
- 간호부: 함형미
- 간호학과: 유문숙, 유미애, 유혜라

< 이후 소속별 후원자 명단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각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307934
SC은행 692-20-166907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발전기금 사무국 ☎ 031-219-4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 의학부 발전기금 SC은행 692-20-307923
- 의대교수 장학기금 SC은행 632-10-026880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의과대학 교학팀 ☎ 031-219-5017

간호대학 건축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217098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7

아주사회사업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161479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사회사업팀 ☎ 031-219-4747

후원자 예우

후원금액	예 우
1백만 원 이상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백만 원 이상	차량 출입증 발급(1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1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3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10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억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평생) 차량 출입증 발급(평생) 건물 또는 실 명명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12년 11월 1일 현재)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화, 목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이광재	화, 금	목	대장암, 대장·외장질환, 기능성 질환		
	유영무	월, 수	목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영	월, 수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금	화, 목	간질환		
	신성재	월, 수	월	위장, 대장질환		
	황재철	금	월, 화	웨·담도질환		
	임선교	목	화, 금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장은정	수(간 센터)		소화기질환		
	윤병조		목	소화기질환		
	김순선	수	월, 금	소화기질환		
	강준구		금	소화기질환		
	김재호	목(간 센터)		소화기질환		
	김동훈	화		소화기질환		
박성청	금		소화기질환			
이홍섭		화	소화기질환			
김태현		월	소화기질환			
서한석	목		소화기질환			
김기범		수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신준환	월, 목	화	판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교승	화, 목	월	부정맥, 심방기생리장사, 전도도차질예측,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월, 목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최소연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최병주	해외연수중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임홍식	월, 화	월, 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최형모	화	수, 금	일반 심장혈관 질환		
	박진선	수	목, 금	일반 심장혈관 질환		
	서경우	금	화	일반 심장혈관 질환		
	김진우		월, 목	일반 심장혈관 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월, 화, 수(외과진료), 금	목	폐암, 폐결핵, 만성 폐질환,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화, 금	월, 수	만성 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신승수	월, 목	화, 금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박주현	월(외과진료), 화, 금	수, 목	호흡기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이규성		수	화, 목, 금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정우영		목	월, 수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정윤정		수	금	호흡기질환		
감염내과		최영화	수, 목	월, 목	원인불명 열, 에이즈, 해외풍토병, 여행자 예방접종, 감염질환	
		임승관	월, 금	화	원인불명 열, 에이즈, 해외풍토병, 여행자 예방접종, 감염질환	
		김현경	화		원인불명 열, 에이즈, 해외풍토병, 여행자 예방접종, 감염질환	
내분비내과		이권우	화, 수, 금	수	당뇨병, 내분비대상질환	
		정운석	월, 화, 목		췌담관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김혜진	해외연수중		뇌하수체질환, 갑상선, 당뇨병	
		한승진	수, 목	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최홍준	수, 금	월, 화	췌담관증, 내분비대상질환		
	이민식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내분비질환		
	안소연	목,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내분비질환		
	김부경		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내분비질환		
	일반진료		화	내분비대상질환(재진만 진료)		
	신경내과	김홍수	월, 목, 수, 금	수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화, 목, 금	수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박인휘	월, 화, 목	금	신장질환	
	중양내과	최진혁	화, 수, 금	목	두경부, 식도암, 폐암, 위암	★
		박준성	월, 목, 금	화	폐결핵, 폐암, 대장암, 위암, 흉종양, 흉부영상의학영역	★
강석운		월, 화, 목	목	각종 고혈압,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이현우		해외연수중		각종 고혈압,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정성현		월, 수	수, 목	폐암, 폐결핵, 폐암, 흉종양, 흉부영상		
안미선		화, 목, 금	월, 금	각종 폐질환 및 고혈압		
일반진료			월, 수	각종 폐질환 및 고혈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외과	조용관	화, 수	수	위장 및 복부질환, 탈장		
	소의영	수	금	갑상선·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월, 금, 토(간이식 후진료)	화	간이식, 간암, 간내결석, 담도		
	서광욱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월, 화, 수, 금	화, 목(초진), 금	장기이식, 외과, 혈관외과(흉·심·뇌·신장·신장·신장)		
	김유환	화, 목		담도, 췌장질환		
	한상욱	수, 금	월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수	외상외과		
	김봉민	해외연수중		간이식, 복강경간수술, 간암, 담도암		
	이종훈	월, 목, 금	월, 수(초진)	장기이식, 외과, 혈관외과(흉·심·뇌·신장·신장·신장)		
	오승연	월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로봇수술		
	김구상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허훈	월, 화	금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김지훈	월, 수		담도, 췌장질환			
이정훈	금	수	갑상선, 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백남현		화, 목	간·담도·췌장질환, 급성복통, 지방종			
김도윤		월, 목	대장·직장·항문질환, 급성복통			
서수한	월	월, 금	갑상선, 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홍우성	화		유방질환			
박용근	간센터 진료		간이식, 복강경, 로봇간절제, 담도암	★		
정경원		목	외상외과			
변철수	수	월, 수, 금	위장, 복부 질환, 급성복통, 지방종			
일반진료	토~일	토~일	혈관외과(10시~15시 원스탑 서비스)			
흉부외과	이철주	화, 금	금	성인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홍유선	목	월, 화	성인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최호	수, 목	수, 목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최호	화, 금	화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일반진료	목				
	정형외과	민병현	화, 금		무릎, 골관절염, 스포츠외상	
		전창훈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슬관절 및 고관절), 중증관절염	
		한경진	수	월, 금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조재호	금	월, 수	소아정형(연령고정, 키늘리는 수술), 17세 미만 족부, 소아외상, 골절손, 절골관 이식	
		한승현	목	월, 수	골 연부조직 종양 / 스포츠외상, 당뇨족부질환-17세	★
		이두형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정남수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이두형	화, 수, 목	화	골 연부조직 종양, 어깨관절 외과, 스포츠외과	
		정남수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지형민		월, 수	목	슬관절, 고관절외과, 인공관절, 골다공증		
송형근		화, 목	월	중증 골관절외과, 비구 및 골반골절		
이상상		월, 금	수	수부외과, 일반정형외과		
정준영		금		무릎 골관절염, 스포츠외상 및 일반정형외과		
박정목		화, 목		척추외과 및 일반정형외과, 최소침습수술		
이재준	월, 화		어깨관절외과, 스포츠외상 및 일반정형외과			
신경외과	조기홍	연구년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환	화, 금	화, 금	소아신경외과		
	안영환	수, 금	월	뇌혈관, 동종, 흉선수술, 뇌혈관, 안면신경, 감각신경, 척수신경		
	김세혁	월, 목	화	뇌종양, 감마나이프수술, 뇌외상, 안면경련		
	김상현	월,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임용철	화, 목	화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치료		
	조진모	화, 수	월	뇌종양, 뇌외상		
	유남규	월, 수, 금	목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이철규	수, 금	수, 금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박정연	월, 화	목, 금	뇌혈관질환		
	성형외과	박명철	월(초진),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박동하	화, 목	금	두개안면기형, 피부종양, 안면부 외상, 코성형	
		이일재	금	월, 수, 목	재건성형, 피부종양, 안성상치, 미용성형	
	성형외과	송현석	화	목	미용성형, 외상, 종양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외과	조용관	화, 수	수	위장 및 복부질환, 탈장		
	소의영	수	금	갑상선·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월, 금, 토(간이식 후진료)	화	간이식, 간암, 간내결석, 담도		
	서광욱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월, 화, 수, 금	화, 목(초진), 금	장기이식, 외과, 혈관외과(흉·심·뇌·신장·신장·신장)		
	김유환	화, 목		담도, 췌장질환		
	한상욱	수, 금	월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수	외상외과		
	김봉민	해외연수중		간이식, 복강경간수술, 간암, 담도암		
	이종훈	월, 목, 금	월, 수(초진)	장기이식, 외과, 혈관외과(흉·심·뇌·신장·신장·신장)		
	오승연	월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로봇수술		
	김구상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허훈	월, 화	금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김지훈	월, 수		담도, 췌장질환			
이정훈	금	수	갑상선, 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백남현		화, 목	간·담도·췌장질환, 급성복통, 지방종			
김도윤		월, 목	대장·직장·항문질환, 급성복통			
서수한	월	월, 금	갑상선, 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홍우성	화		유방질환			
박용근	간센터 진료		간이식, 복강경, 로봇간절제, 담도암	★		
정경원		목	외상외과			
변철수	수	월, 수, 금	위장, 복부 질환, 급성복통, 지방종			
일반진료	토~일	토~일	혈관외과(10시~15시 원스탑 서비스)			
흉부외과	이철주	화, 금	금	성인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홍유선	목	월, 화	성인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최호	수, 목	수, 목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최호	화, 금	화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일반진료	목				
	정형외과	민병현	화, 금		무릎, 골관절염, 스포츠외상	
		전창훈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슬관절 및 고관절), 중증관절염	
		한경진	수	월, 금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조재호	금	월, 수	소아정형(연령고정, 키늘리는 수술), 17세 미만 족부, 소아외상, 골절손, 절골관 이식	
		한승현	목	월, 수	골 연부조직 종양 / 스포츠외상, 당뇨족부질환-17세	★
		이두형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정남수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이두형	화, 수, 목	화	골 연부조직 종양, 어깨관절 외과, 스포츠외과	
		정남수	수, 목	화	척추외과, 최소침습 수술	
지형민		월, 수	목	슬관절, 고관절외과, 인공관절, 골다공증		
송형근		화, 목	월	중증 골관절외과, 비구 및 골반골절		
이상상		월, 금	수	수부외과, 일반정형외과		
정준영		금		무릎 골관절염, 스포츠외상 및 일반정형외과		
박정목		화, 목		척추외과 및 일반정형외과, 최소침습수술		
이재준	월, 화		어깨관절외과, 스포츠외상 및 일반정형외과			
신경외과	조기홍	연구년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환	화, 금	화, 금	소아신경외과		
	안영환	수, 금	월	뇌혈관, 동종, 흉선수술, 뇌혈관, 안면신경, 감각신경, 척수신경		
	김세혁	월, 목	화	뇌종양, 감마나이프수술, 뇌외상, 안면경련		
	김상현	월,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임용철	화, 목	화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치료		
	조진모	화, 수	월	뇌종양, 뇌외상		
	유남규	월, 수, 금	목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이철규	수, 금	수, 금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박정연	월, 화	목, 금	뇌혈관질환		
	성형외과	박명철	월(초진),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박동하	화, 목	금	두개안면기형, 피부종양, 안면부 외상, 코성형	
		이일재	금	월, 수, 목	재건성형, 피부종양, 안성상치, 미용성형	
	성형외과	송현석	화	목	미용성형, 외상, 종양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산부인과	유희석	월, 목		부인암		
	김형수	화, 수	목	고위험산모, 조음과(태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금	월, 수	부인과		
	양정민	월, 목	토, 수	고위험산모, 조음과 (태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화, 수	월, 화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차궁내막증		
	김미란	월	화, 목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미용여성		
	장성준	화, 금	화, 화	부인암, 복강경, 요실금		
	백지훈	수, 목, 금	수, 목, 금	부인과, 부인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공태욱	월, 화, 목, 금		부인과, 부인암, 복강경수술	★	
	신유정		월, 화, 수, 금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양성난소종양)	★	
	일반진료	화, 수				
	안과	유호민	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토, 화, 금	월	녹내장, 백내장 (원:레이저치료)	
		양홍식	월, 금	화, 목(신시교정클리닉)	라섹·엑시머,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하드), 원추각막	★
		국경훈	화	화	안성형, 외안클리닉	
송지훈		수	토, 금	망막, 초저체, 백내장(원:레이저치료)		
정승아		목(시경클리닉)	수, 금	소아안과, 사시	★	
이기환		목	월(방역클리닉), 화, 목	망막, 초저체, 백내장(수레이저치료)	★	
박수연		목	화, 수, 목	녹내장, 백내장 (원:레이저치료)	★	
이미빈			토, 수, 목	망막, 초저체, 백내장(원:레이저치료)	★	
정유리		대우병원 파견		망막, 초저체, 백내장(원:레이저치료)		
일반진료		월-금	월, 토, 일	안질환	★	
이비인후과		박기현			진주종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12년 11월 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1688-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고객상담실 : (031) 219-4242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4311
- 응급의료센터 : (031) 219-77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직업환경의학과	이경중		화, 금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박재범		월, 목	직업성 질환	
	민경복		수	직업성 질환, 환경성 질환	
일반진료		월, 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이득주	월, 수, 목	금	갱년기, 노화관리, 류마티스	★
	김광민	월, 수, 금	목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	
	박선훈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월, 수	화, 목	골다공증, 갱년기, 대사	
	주남석	해외연수중		비만,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조두연	금	수	건강증진, 피로	
	김규남	수, 목	월, 금	건강증진, 피로	
	홍두희	월	목	건강증진, 피로, 노화관리	
	박수정	화	금	건강증진, 갱년기	
	김수연	월, 목		건강증진, 갱년기	
조성환	수	화	건강증진, 노화관리		
치과	백광우	화, 목, 금	월, 수, 금	진정치료, 치아우식증치료, 장애우치료, 소아치과	
	정규민	화, 목, 금	화,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대방교정, 금속교정	
	이정근	화, 수, 목	목	임플란트, 악안면기형, 외상	
	송승일	화, 금	월,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악교정 수술	
	하승룡	화, 목, 금	화, 목, 금	고정성·가철성 보철,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홍성태	월, 화, 수, 목	화, 목	치아우식증, 신경치료	
	한금아	월, 수, 금	월, 화, 수	잇몸염증, 치주수술, 치은성형, 임플란트	
	방강미	월, 수, 금	금	임플란트, 구강악안면외상, 턱관절 질환	
	남경연	월, 수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예방교정, 금속교정	
	일반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오후만 초진가능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의학과	조준필	수, 목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화	수	목(1,4주)	소생의학, 중독학, 응급질환	
	이국중	금		월,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월	화	목(2,3주)	응급질환, 중환자의학, 중독학	
	김기운	금	월	화, 금(1주)	응급질환, 소생의학	
	최상찬	목	금	월	응급질환, 중독학	
이지숙	월	월	수	응급질환, 소아응급		
박은정	수	목	금	응급질환, 소생의학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진단	손영배	화, 수, 금	월, 목	염색체상염 유전질환, 유전성 대사질환, 혈관지연, 선천성 가족성 알콜성 질환	
	일반진료				
학술상담	신유미	월, 목	화, 목	소아·청소년 정신과, 턱장애, 자폐장애	
	조선미		월, 수	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주영	월, 목	화		
신경내과	김도원	화, 수, 금 토(2,4주)	화, 수	대뇌교뇌신경통, 수면장애, 경림초파리, 후두수술, 후두암, 신경통, 다발성	
	양종원	월, 목	월, 목, 금	뇌혈관 질환(중풍), 뇌염, 척수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뇌혈관 질환	
	일반진료	월, 금	화, 수, 목		

는 웰빙센터에 위치한 진료과입니다.

〈전문클리닉〉

진료과	진료클리닉명	의사명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정재연 왕희정 김봉원 원재환	월, 화, 목 월, 금 월, 금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화, 목 화 화 화 월, 화, 수, 목	★
	점막하층양클리닉 5976	김진홍 이기명 황재철 조종관 한상욱	화, 목 월, 수 목 수, 금 수, 금	수 수 월, 금 월 월	
순환기내과	심부전 및 관상질환클리닉 5717	신준한		화	
감염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4730	최영화	수, 목	월, 목	
폐외과	벌독(근중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남동호	화, 금 월, 목	수 화, 금	
	알레르기류마티스	관찰염클리닉 4310 / 5902	남동호 서창희	월, 목 화, 목, 금	월
류마티스내과	루푸스클리닉 4310	김현아	화		
소아청소년과	성장클리닉	황진순	목	월, 목, 금	
정신건강의학과	공황장애클리닉 5814	임기영	금		
외과	대장항문병클리닉 5758 진료접수 Hot Line 5200	서광욱 오승업 이광재	화, 목 월, 목, 금 화, 금	월, 목 화 목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홍유선	목	월, 화	
흉부외과	흉벽기형클리닉 5752	임상현	수	수, 목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김선웅 임용철	수 화, 목	화	
	신경외과 성형외과	두개안면골 기형 수술클리닉 5664	윤수한 박동하 정재호	화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박동하	화	목, 금	
피부과	피부종양클리닉 5614, 5917	김유찬 이일재 장용현	화 수 월	화 목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김미란	화, 수 월	월, 화 화, 목	
안과	시력교정클리닉 5673	양홍석		목(예약)	★
	의안클리닉 5673	국경훈	화	월, 목	
이비인후과	난청클리닉 5742	정연훈 박현이	화 수	목 목	
	어지럼증클리닉 5742	박현이		금	
	수면클리닉 5746	김현준		화	
	음성클리닉 5746	김철호	월		
	두경부클리닉 5746	김철호	수(2,4주)		
비뇨기과	오실금클리닉 5585	최종보	수, 금	월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월	수, 금	
재활의학과	사경치료클리닉 5802	임신영 박명철	화, 수, 금 월, 수, 금	목	★
	아동재활클리닉 5802	임신영	화, 수, 금	목	
	오십견클리닉 5802	윤승현	월, 목	화, 수	
가정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주남석	월, 목 해외연수중	화	★
	금연클리닉 5959	주남석	해외연수중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이정근 송승일		수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송승일	목	화	

〈암센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위암센터	조종관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한상욱	수, 금	월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허훈	월, 화	금	상부위장관질환, 위암, 복강경	
	이기명	월, 수	수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신성재	수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강석운	월	목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노오규	월, 수, 금	수	폐암, 소화기암, 간담도암	
	임신교	목	월, 화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최진혁	화, 수, 금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양희정	월, 금, 토(간이식후진료)	화	간이식, 간암, 간내결석, 담도	
간센터	김보원	해외연수중		간이식, 복강경간수술, 간암, 담도암	
	박용근	화	월, 금	간이식, 복강경, 로봇간절제, 담도암	
폐암센터	황성철	월, 화, 금	목	폐암, 폐결핵,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화, 금	월, 수	폐암, 만성폐질환,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신승수	월, 목	화, 금	폐암	
	박주현	화, 금	수, 목	호흡기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최호	화, 금	화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최진혁	화, 수, 금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대장암센터	강석운	월	목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오영택	화, 금	월, 화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서광욱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승업	월, 목		대장·직장·양성항문질환, 로봇수술	
	김도원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금성복통	
5758	이광재	화, 금	목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기능성 질환	
	신성재	수	월, 금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임신교	목	월, 화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강석운	월	목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전미선	월, 화, 목, 금	월	종양(두경부, 유방암, 피부암, 소아암, 대체요법)	
유방암센터	노오규	월, 수, 금	수	소화기암, 폐암, 간담도암, 피부암	
	정용식	화, 수, 금	금	유방 질환 및 유방암 *은 밀모를 사용한 시행	
4744	홍우성	월, 목	월, 수, 목	유방 질환 및 유방암 *은 밀모를 사용한 시행	
	전미선	화	화, 금	유방 질환	
4744	강석운	화, 목		유방종양	
	민병현	화, 금		무릎관절 연골재생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진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외래진료 접수 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토요일 선택진료 운영 안내

토요일에도 선택진료 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료합니다.
(* 표가 있는 진료과는 토요일 진료를 시행합니다).

외래진료 절차 안내

- * 예약환자의 진찰료는 진료 후 수납하시면 됩니다.
- * 직접 방문한 환자의 당일 진료는 예약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처음 오신 분은 진료신청서 작성 후 각 층 접수·수납 창구에 신분증,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과 초진환자는 진료신청 또는 수납 시 진료신청서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 시 (031-219-5451)

-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초진 시), 진찰권 번호(재진 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www.ajoumc.or.kr)

- *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진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혈실 운영 안내

- * 1층 통합검사실: 평일(월~금) 08:00~16:00, 토요일 휴무
- * 2층 외래채혈실: 평일(월~금) 06:30~16:00, 토요일 08:00~12:30

셔틀버스 운행 노선

- *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교문 서점) → 우리은행
 - 우만신성아파트(미소지움) → 삼성생명빌딩(동수원사거리)
 - 동수원병원 맞은 편(구 조흥은행) → 인계성경아파트(이화약국)
 - 매탄1동 우체국(우리은행 맞은 편) → 신라갈비 → 병원 현관
- 평일 오전 8:30~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평일 12:30분, 토요일·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생의 마지막 순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던 생명의 시작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 국립장기기식관리센터 (www.konos.go.kr)
+ 아주대학교병원 장기기식상담실 (본관 3층 외과 내) 031-219-5547

는 웰빙센터에 위치한 진료과입니다.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JOU
UNIVERSITY
HOSPITAL

World Class Hospital, World Class Safety

국제 의료기관 인증 병원

JCI 인증은... 아주대학교병원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 6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JCI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표준 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만 발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J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총 1,222개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에서
세계적 표준을 충족하여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